



한인 비행사 양성소 설립(1920.2.20)

임시정부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비행사 양성소를 설치하고 비행대 편성을 시도하였다. 비행기를 이용하여 국내에 선전 전단을 뿌린다는 계획이었다. 이를 실천에 옮긴 인물은 군무총장 노백린과 캘리포니아주 윌로우스(Willows)에 있던 ‘쌀의 왕’ 김종립이었다. 이들은 1920년 2월 20일 윌로우스 농장 부지에 한인 비행사 양성소를 설치하였다. 5월에는 비행기 2대를 구입하여 미국인 기술자 1명과 비행사 6명으로 교관단을 구성하고, 생도 19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작하였다. 생도는 점점 늘어나 1922년 6월에는 41명에 이르렀고, 1923년 졸업생 11명을 배출하였다. 그러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문을 닫았다.

2021 1*2

통권 115호

독립정신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회보 「독립정신」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관지 「독립신문」의 자주독립정신과 정통성을 이어받고자 합니다.



04

머릿글_

민족주권을 바로 세울 때

| 조성우

06

권두 인터뷰_장명국 신임 조선민족대동단기념사업회 회장
대동단은 시대를 앞서나간 독립운동단체

| 편집부



13

특집 1_

문재인 정부, 2018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살려라

| 김경민

19

특집 2_

독립운동歌 복원 프로젝트 <100년의 소리>

| 이은지



30

청년에게 듣는다_

잃어버린 세대가 되지 않으려면

| 김수빈

35

청년에게 듣는다_

민족 정론지로 둔갑한 민족 반역지

| 황현자



발행인 | 김자동

편집인 | 임재경

편집위원 | 곽태원, 김대영, 원희복, 박덕진, 최석우

편집 · 디자인 | 대관인쇄

우 03173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길 19 로얄빌딩 602호

(사)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TEL : (02)3210-0411 | FAX : (02)732-2870 | E-mail : kpg19197837@daum.net

홈페이지 : kopogo.kr

39

기고_

일본 역사수정주의의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부정

| 이규수



39

42

기고_

윌로우스 임시정부 한인비행학교 사적지 보존을 위한

항공박물관 및 기념공원 사업

| 류기원

45

우리 고장의 독립운동_

세종시 지역의 독립운동

| 윤철원



54

57

임정서가_

『동주, 걷다』

『영원한 유산』

『우산이 없어도 좋았다』

| 편집부



60

59

독립정신 이모저모

민족주권을 바로 세울 때

“2021년 한반도 평화의 앞길은 아직 불투명하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선노동당 8차 대회 보고를 통해 남한의 군비 증강과 미국의 대북 적대 시 정책을 비난하면서, 정치·군사적인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핵·미사일 능력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종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해왔으나, 군비 증강을 멈추지 않고 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정부의 북미 합의를 어떻게 이행할지는 모호한 상황이다. 그러나 상황이 비관적이지만은 않다. 남, 북, 미 모두 대화의 문을 닫지 않고 있으며, 외교적 해결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올해 1월 23일 발표된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위해 행동하는 코리아 피스 메이커 2021 선언문’ 가운데 일부이다.

한국전쟁 빌발 70년, 휴전협정 체결 67년이던 작년 <한반도 평화선언(Korea Peace Appeal)> –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에 국내 7대 종단과 360여 개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50여 개의 국제 협력 단체가 참여했다. “한국전쟁을 끝내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한반도와 세계를 만들자”라는 목소리를 전 세계 1억 명 서명과 각계각층의 지지 선언을 얻어 UN과 미국에 보내려 한다.

또한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대표단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 취임에 즈음하여 첫째, 바이든 정부가 70년 한국전쟁을 끝내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를 이루는 데 진정성 있게 나설 것. 둘째, 바이든 정부는 그동안의 남북 합의와 협력을 존중하고 남북 교류와 협력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지원할 것. 셋째, 바이든 정부는 제재와 압박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으로 북한과의 협상을 이어갈 것. 넷째, 바이



조 성 우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든 정부는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전 지구적인 노력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 등의 내용을 서한으로 작성하여 공식 전달했다.

비록 짧지만, 〈Korea Peace Appeal〉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굳이 소개하는 이유는 이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근현대사 굽이굽이에서 그랬듯이 국민의 힘을 비상하게 발동해야 할 때다.

앞서 인용한 “그러나 상황이 비관적이지만은 않다. 남, 북, 미 모두 대화의 문을 닫지 않고 있으며, 외교적 해결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외교적 표현이다.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2018년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에서 천명했듯이 남과 북의 대화와 협력에 대한 의지는 여전히 분명하고 확고하다. 특히 판문점·평양 선언은 앞선 남북공동선언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가 정치·군사적인 공동노력을 확인하였다. 이는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을 더욱 진전시키기 위해 그 기본을 단단히 하는 일이 된다. 하지만, ‘냉전의 뒷’을 끊어내고, 평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는가? 북미 간의 새로운 관계를 약속한 싱가포르 선언까지 나왔는데 지금의 불안한 상황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남북의 태도에 대해 지적해야 할 내용이 물론 없지 않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미국이다. 지소미아 논쟁 때 보여준 미국의 태도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은 남한을 미·일 동맹의 하부 파트너로 끓어놓으려 한다. 올해 유엔 회원국이 된 지 30년이 되는 북한을 미국은 주권국가로 대한 적이 별로 없다. 2000년 북미 공동선언, 2018년 싱가포르 선언 등이 있었으나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오만할뿐더러 무지하기도 하다. 그렇다고 마냥 미국에 설명만 해서 고쳐질 일도 아니다.

국민의 힘으로 민족주권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 국제정치는 철저한 힘의 관계로 이루어진다. 그 힘은 권력 간의 관계뿐만이 아니다. 권력을 만들어 내는 실체적 힘을 가진 국민이 넓고 크게 연대할 때, 민족의 주권은 힘을 갖게 된다. 미국의 대북 제재는 민족주권에 대한 침탈 행위다. 마땅히 민족 공동의 노력으로 돌파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 당부한다. ‘여건’은 현 정부가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서둘러야 한다.

그 시작은 3월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심각하게 재고하는 것부터가 아닌가 싶다.

신축년에 남북관계를 서둘러 ‘신축’ 하는 일이 우리의 임무이자 권리다. ☀

대동단은 시대를 앞서나간 독립운동단체 기념사업 물적 토대 닦겠다

독립정신 편집부



사단법인 조선민족대동단기념사업회(이하 대동단기념사업회)는 지난해 11월 30일 총회를 열고(코로나19 거리두기로 서면으로 진행), 장명국 내일신문 대표(발행인)를 회장으로 선임했다. 초대 조문기 회장(1945년 7월 만 18세 나이로 친일 행사가 열린 부민관에 폭탄 투척, 건국훈장 애국장,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역임, 2008년 작고), 2대 김위현 회장(명지대학교 명예교수, 『동농 김가진전』 저자), 3대 임재경 회장(언론인,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한겨레 초대 편집인 역임)에 이은 네 번째 회장이다.

장명국 신임 회장은 1947년생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반독재 민주화 학생운동의 산증인이다. 분단으로 끊어졌던 자주적 노동조합의 맥을 되살린 한국 노동운동의 산파 가운데 한 명이다. 1993년 「내일신문」

을 창간해 국내 최초로 유료 온라인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론지로 키웠고, YTN 사장을 역임했다. 장 신임 회장에게 대동단기념사업회 신년 구상과 계획을 들어보았다.

코로나도 그렇고, 국내외 정세도 그렇고, 회장 취임 축하 말씀을 드리기가 민망합니다. 어깨가 무거우시겠습니다.

“이사님들과 회원님들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지 못해 송구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지도 편달을 청하려 합니다. 부회장님 세 분께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대동단

어르신들 후손도 아니고 연배도 낮습니다. 조선민족대동단의 역사와 정신을 젊은 세대에게 이어주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하라는 뜻으로 새기겠습니다.”

대동단기념사업회 이사는 현재 스무 분이다. 장명국 신임 회장은 대동단기념사업회가 출범할 때 이사로 참여했다. 김자동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회장과 임재경 전임 회장의 권유였다. 장 신임 회장은 “저와 한두 분 빼면 이사님들께서 쟁쟁하시고, 모두 독립운동가 후손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나중화 부회장은 나창현(羅昌憲, 1896~1936, 대동단원, 임시의정원 의원, 임정 경무국장·내무부 차장, 건국훈장 독립장) 선생의 아드님이고, 신복룡 부회장은 최익환(崔益煥, 1889~1959, 대동단원, 신간회 간사, 해방 후 한독당 중앙상무위원, 건국훈장 애국장) 선생의 서랑(壻郎)이며, 권영관 부회장은 권태석(權泰錫, 1894~1948, 대동단원, 신간회 서무부장, 해방 후 건준 참여, 건국훈장 애국장) 선생의 아드님이다.

회원 늘리고, 재정 자립 꾀해야

이사와 회원들께서 회장을 맡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칠십이 넘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젊으니, 노력봉사 하라는 뜻이 아니셨을까요? 제가 참 기막힌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대동단 총재이셨던 동농 김가진 선생께서 칠순 노구를 이끌고 상하이로 망명해 임정 고문을 맡으셨어요. 그런 어른께서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드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이에요? 동농의 며느님이고 김자동 회장님의 어머님이신 정정화 선생님께서도 독립자금을 구하려 죽음을 무릅쓰고 밀사 역할을 자청하지 않으셨습니까? 독립운동이든 기념사업이든 물적 토대를 충실히 닦아야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은 회원의 회비로 굴러가요. 제가 회장을 맡고 보니까, 이사 포함해서 회원이 모두 마흔다섯 분입니다. 회원을 늘리는 것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마음먹었습니다.”

신임 회장의 첫 임무가 회원 모집인 셈이군요.

“우선 1주일에 한 번씩 모시려고 해요. 1년이면 50명이 되겠지요? 회원으로 되신 분이 또 회원을 모아주시겠지요? 쉽지 않아요. 이런 일은 얼굴을 보면서 말씀드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힘든 거예요.”

회장 선임 이후 달포가 지났다. 그 사이 장 신임 회장이 늘린 회원 수는 약 40명. 이 속도라면 올해 말 목표 달성을 무난하겠다고 했더니, “혼자 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정색한다. 회원 가입은 무엇보다도 대동단의 역사와 정신을 공유하는 일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젊은 청년 학생들이나, 졸업하고 사회에 갓 나온 분들에게 회원 가입 권유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경제적으로 자립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립한 힘으로 대동단기념사업회에 가입해서 회비를 잘 내주십시오, 그리고 직장이나 학교에서 회원을 모아주세요, 이렇게 말하겠지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대동단이 무엇인지, 대동단이 지금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부터 알고 공감해야겠지요? 이런 일은 만나서 얘기해야 합니다. 자료도 챙겨서 보여드리고.”

그러니까, 회원 늘리는 게 사업회의 일상적 사업을 확대하는 일이라는 말씀이군요.

“뒤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회원 가입 권유하면서 대동단 강령 이야기를 하면, 듣는 쪽에서 ‘어? 그래요?’ 이립니다. 사실 저도 대동단을 자세히 몰랐어요. 대동단은 100년 전에 탄생한 조직이고, 과거잖아요? 묻혀 있어요. 과거를 조명해 복원하고, 왜곡된 게 있다면 바로잡는 일을 해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회원 늘리는 일도 어렵습니다. 저는 대동단 역사 발굴하고 재조명하는 일을 교수님들이나 연구자분들에게 부탁드릴 때도 재능 기부로 해주십사 말씀드릴 겁니다. 제가 그런 일은 좀 해봤어요.”

장 신임 회장은 1998년 자연보호중앙협의회 회장을 맡았다. 지인들이 등을 떠밀다시피 써운 감투였다. 회원이 10만이 넘고, 기초·광역의원이나 단체장을 70명 넘게 배출한 거대조직인데, 사실 상 관변단체로 운영되었다고 한다. 그가 회장이 되자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겠다고 했다. 일언지하 거절하고, 회비 안 내면 회장 안 한다며 1년에 1만원 회비 내는 회원에게만 투표권을 주기로 뜻을 모은 뒤, 임원들과 함께 쓰레기를 줍기로 했다. 조직이 살아나자 서로 일을 맡겠다고 나섰다고.

“저를 회장으로 뽑고 나서 다들 제 얼굴만 봐요. 돈 만들어오라는 거지요. ‘이렇게 살지 맙시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가 재정 자립, 다음이 후원금 그리고 그다음이 정부 지원, 이게 원칙입니다. 그 래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할 수 있어요. 저는 임기 딱 한 번만입니다. 잠시 있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물적 토대를 만드는 일은 동농 선생과 며느님 정정화 선생의 유지를 받드는 일입니다.”

조선민족대동단 재평가 시급

회원 모집과 함께 장명국 신임 회장이 시급하게 여기는 일이 또 있다. 조선민족대동단 재평가다. 대동단의 역사와 정신이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고, 심지어 왜곡되어 있다는 게 그의 문제의식이다. 장 신임 회장은 신복룡 부회장이 저술한 『대동단실기』를 꺼내 보이며 말을 이었다.

“기념사업회 만들 때부터 이사였지만, 대동단이 무엇을 지향했는지 잘 몰랐어요. 이제부터 열심히 공부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대동단이 1919년 삼일운동 직후 만들어진, 비밀 지하조직이에요. 5월에 처음 나온 강령은 첫째 독립, 둘째 평화 그리고 셋째가 사회의 자유였습니다. 그런데 9월에, 자유가 사회주의로 바뀌어요. 동농 선생이 총재가 된 뒤입니다. 한 개인이 사회주의 사상을 접하고 받아들였다면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대동단은 조직입니다. 총재 동농은 대한제국 대신을 지냈어요. 가볍게 일하실 분이 아니지요. 중국공산당이 생긴 게 1921년입니다. 이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시대를 앞서갔다는 뜻인가요? 어떤 이들은 동농 선생이나 대동단에 ‘복벽(復辟)’이라는 딱지를 붙이기도 합니다만.

“저도 이전에는 대동단 강령의 변화를 몰랐습니다. 나중에 전협 선생을 비롯한 대동단원들이 일제 재판정에서 이런 주장을 하십니다. 저는 이제까지 사회주의 단 한 번 얘기해본 적도 글로 써본 적도 없어요. 그랬는데도 국가보안법으로 수감됐어요. 하물며 이분들은 일제 앞에서 사회주의를 당당하게 외치신 겁니다. 독립이나 평화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회주의는 지금도 쉽게 얘기하지 못합니다. 복벽주의라면 과거형인데, 사회주의와는 안 맞잖아요? 강령을 보았다면, 대동단을 두고 복벽 운운할 수는 없지요.”



심지어 동농 선생의 과거를 ‘친일파’로 몰아붙이는 이들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선친일 후독립’, 이런 얘기까지 튀어나오던데… 이게 무슨 소린가 봤더니, 동농에게 ‘친일파’였다는 전제를 써워놓은 거예요. 내가 역사학자는 아니지만, 동농은 친일파가 아니라 ‘친고종’이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친고종’에서 비밀지하조직, 사회주의 강령 그리고 상하이로 망명, 이렇게 나아갔다고 봐야지요.”

이 점과 관련,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은 「아주경제」가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으로 연재한 동농 김가진 일대기 마지막 회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일본당’이다 아니다는, 개화 당시에는 상대적인 것입니다. 청나라 쪽의 방법이 나온가, 일본 쪽이 나온가. 나중에는 러시아도 나오지요. (...) 해외 견문을 한 분이니까, 나라가 어떻게 가야 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견해가 있었겠지요. 황제 밑에서는 그걸 강하게 주장하지 못했을 뿐이고, 3·1운동 속에서 이제껏 억눌렸던 민족적 의식이 나왔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대동단 총재를) 받아들였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만열, 「아주경제」, 2019.2.13)



“전협 선생께서 총재로 모시려고 명망가들을 만났는데, 동농만 승낙했다고 해요. 진보가 다 옳은 건 아니지만, 당시 사회주의는 미래지향적인 진보였어요. 동농이 일찍이 주일공사를 지냈지 않습니까? 세계 동향을 보았겠지요. 러시아혁명 이전에도 유럽에는 사회주의의 오랜 뿌리가 있고요.”

그리 말씀하시니까, 대동단이라는 명칭도 다시 다가옵니다.

“임정은 공화정, 공화정도 그 당시는 진보지요. 동양사상에서, 공자가 『춘추』를 썼는데, 최고의 이상사회를 대동사회(大同社會)라고 해요. 서양은 공동체를 ‘꼬뮨(commune)’이라고 하고, 우리는 대동이라고 쓴 겁니다. 지금 중국이 ‘중국식 사회주의’를 주장합니다만, 시진핑 주석이 중국을 2049년까지 대동사회로 만들겠다고 재작년에 말했어요. 대동단은 지금부터 100년 전에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학계에서 생각을 좀 바꾸었으면 합니다.”

대동단 정신, 젊은이들에게 알리자

장명국 신임 회장은 인터뷰 내내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조선민족대동단이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동단기념사업회가 고등학교 선생님들과 힘을 모아 젊은 세대와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분들, 고등학교 역사 선생님, 국어 선생님들과 연구를 함께 해보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도 함께 찾아야겠지요. 얼마 전 인터넷에서 대동단을 검색하다가, 1976년에 나온 연기군 군지(郡誌)에 실린 대동단 기사를 찾았습니다. 연기군이 지금 세종시인데, 여기 근무하는 공무원 한 분이 그 내용을 인터넷에 올렸어요. 연기군에서만 여섯 분이 대동단 활동을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대동단은 강령으로 보나 규모로 보나, 대단히 선진적인 독립운동단체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교사분들에게 알리면 호응과 참여가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함께 자료도 발굴하고요. 역사나 국어시간에 3·1운동이나 독립운동 나올 때 대동단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사업의 외연을 젊은 세대로 넓혀야겠지요.”

회보도 발간하셔야겠네요.

“저는 회보를 인터넷-모바일로 내려고 해요. 인쇄비, 우표값 아껴야지요. 저 같은 칠십대는 종이 신문이 편하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스마트폰으로 보잖아요? 1998년에 YTN에서 일할 때 인터넷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자연보호중앙협의회에서도 회의 결과를 인터넷을 통해 회원들에게 알렸습니

다. 내일신문도 e-내일신문이 있습니다. 제게 경험이 좀 있어요. 모바일로 해야 홍보도 더 되고, 회원도 늘릴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신복룡 부회장이 『대동단실기』 초판을 출간한 때가 1982년 9월이다. 책을 출간하면서 정부에 대동단원 서훈을 신청했는데, 한 분도 못 받으셨다고 한다. 전두환 정권 시절이었다.

“보훈처라는 데가 증거주의니까, 일제 재판 기록으로 심사를 해요. 이건 일본 사람들이 만든 거잖아요? 대동단은 비밀지하조직입니다. 왜경에 불들리지 않는 게 최우선입니다. 연기군 군지에 나온 대동단 기사에 대동단원 여섯 분이 나오는데, 두 분은 감옥소를 갔다 오셨고, 나머지 네 분은 안 가셨어요. 안 잡혔으니까, 일을 더 많이 하셨겠지! 그런데 기록이 없다고 서훈을 못 받으셨어요. 그래도 민주화가 되면서, 신복룡 부회장님을 비롯해 여러분께서 수고를 해주셔서, 지금은 대동단에 참여하셨던 여든세 분께서 서훈을 받으셨어요.”

동농 선생도 여태껏 서훈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요. 대동단 총재가 서훈을 못 받았어요. 당연히 받으셔야 할 서훈인데요. (서훈 문제와 관련) 지금까지는 호소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분위기를 바꾸어야 합니다. 제가 얼마나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회 분위기를 바꿔야 합니다. 강령도 재조명하고, ‘복벽’이니 ‘선친일’이니 하는 왜곡도 걷어내야 합니다. 여기에 젊은이들의 목소리가 실려야 합니다.”

김자동 임시정부기념사업회 회장과 임재경 대동단기념사업회 전임 회장은 장명국 신임 회장에게 “길게 보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독립의 과업이 아직 완수되지 않았다는 뜻이리라. 장 신임 회장은 두 분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 임기 동안 대동단기념사업회가 쪼꼼 발전했다는 말을 듣는 것으로 충분합니다”라며, 계승과 확대를 자신의 역할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

문재인 정부, 2018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살려라 바이든 정부의 탄생과 한미-남북-북미관계

1

2020년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는 바이든의 승리로 끝났다. 2021년 1월 20일 예정대로 바이든이 취임했지만 워싱턴의 상황은 비상사태가 선언되는 등 심상치 않다. 극심한 백인 극우주의자들의 반란으로 6명이 사망하고 트럼프가 두 번째로 하원에서 탄핵되는 등 미국은 내전에 준하는 극심한 사회적 분열 속에 있다. 미국의 코로나 상황도 매일 2천명 이상이 사망하는 등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지만 코로나로 인한 사회경제적 외상은 극에 달하고 있다.

2

바이든의 승리는 트럼프가 주도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근본적 전환을 의미한다. Top-Down 방식이 Bottom-Up 방식으로 바뀔 것이며 트럼프 시기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함께 워킹그룹 중심의 실무 협상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측된다.



김 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3

더군다나 바이든은 1월 20일 취임과 함께 코로나, 경제회복, 분열된 미국의 통합 등 산적한 국내문제와 파리기후협약 복귀, 이란 핵 협정 복원 등의 우선적 대외과제에 치중할 것으로 보여, 북핵 등 대북문제 대응은 상당기간 정책 후순위로 미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4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이 가다듬어지고 대북 접촉이 이루어지는 시점은 일러도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에 해당한다. 잔여 임기 1년 4개월을 앞둔 문재인 정부로서는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다. 바이든 정부의 예상되는 정치 일정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사실상 종결된 것이 아닌가 하는 회의적 의견도 현실로 제기되고 있다.

5

북한은 2021년 1월 5일부터 12일까지 제8차 당대회를 개최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당총비서로 추대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사업총화보고를 통해 “북남관계가 활성화되는가 못 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태도에 달려있으며 대가는 지불한 것만큼, 노력한 것만큼 받게 되어 있다”며, 북측 기준의 ‘상호주의’를 관계 개선의 원칙으로 제시했다. 또한 남북관계 긴장의 원인이 남북합의의 역행하는 남측의 군사력 증가와 한미연합훈련 실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가까운 시일 안에 북남관계가 다시 3년 전 봄날과 같이 온 겨레의 염원대로 평화와 번영의 새 출발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6

관심을 모은 대미관계에 대해서는 “새로운 조미관계의 수립의 열쇠는 미국이 대조선 적대

시 정책 철회하는 데 있다”며, “앞으로도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천명했다. 또한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핵능력 강화를 통해 안전을 지키며 중국과 러시아 등 우방들과 연대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7

문재인 대통령이 1월 11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통해 남북의 방역협력 등을 언급하였으나, 북한이 이미 제8차 당대회 총화보고를 통해 “방역협력, 인도주의적 협력, 개별관광 같은 기본질적인 문제들을 꺼내들고 북남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고 비판한 점을 미루어 볼 때 대북 메시지 관리의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8

바이든 당선으로 트럼프와의 Top-Down 방식을 통한 비핵화와 미국 제재 해제에 대한 북한의 기대는 무산되었다. 대북 제재의 무게를 고스란히 안고 미국과의 직접 교섭이 기약 없이 미루어지고 있는 현 상황은 북한에게는 부담으로 남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코로나와 내전에 가까운 미국의 내부혼란 등으로 미국이 강도 높은 적대시 정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9

바이든 대통령은 북핵문제 대응을 정책 후순위에 배치하고 그 불가피성을 한국 정부에 전하면서 미국의 권력 이행기에 반복해 온 북한의 전술적 도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상황을 관리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를 비롯한 다양한 여권 채널을 통해 도발 자체를 요청하는 메시지가 언급되고 있고, 문정인 특보가 무력 도발이 없을 때 취임 후 5~6개월 내로 북미회담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언급 등을 한 것을 볼 때 이는 대북제재와 한미동맹의 틀에 묶인 남북관계에 일정한 자율적 공간을 보장하는 논의도 함께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 만하다. 북측의 요구를 수용하는 카드 없이는 상황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0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은 한국의 역할에 대해 강력한 불신을 피력하였다. 한국의 촉진자 역할을 정면 비판하였고 새로운 셈법을 미국에 요구하면서 북미 간 직접 협상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에서 북미 직접 교섭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북미간 협상 재개에 다시 한국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현 국면을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여는 마지막 기회로 삼아 2018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모멘텀을 살려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11

바이든의 취임과 함께 현 단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중요 현안으로 2021년 3월 예정되어 있는 키리졸브 한미연합훈련의 실시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전시작전권 환수 일정을 이유로 고심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훈련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훈련중지를 요구하는 성명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미 북한이 표명한 강대강 선대선 원칙에 입각해 볼 때 키리졸브 연합훈련의 강행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재개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동력 상실을 함께 초래할 수밖에 없다.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선거공학적 이해까지 합쳐져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남은 기회를 차버리는 역사적 어리석음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12

한국은 먼저 미국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로드맵 작성에 개입·협의하는 데 외교적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블링컨 국무장관 예정자는 대북 강경론자로 분류되지만 쿠바, 베네수엘라 국교정상화에 관여하였으며 이란 핵 협정 타결에도 참여하였다. 2008년과 확연히 달라진 2021년 북한의 핵(미사일) 상황은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로 회귀하지는 않

을 것이다. ‘전략적 인내’는 이미 미국 민주당에서도 실패한 정책으로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다.

13

바이든은 Bottom-Up 방식을 통한 실무적 협상을 추인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전개할 것이며, 오바마의 이란 핵 협상 과정에서 보여주듯 비핵화 협상에서 다자간 해법을 제안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문정인 특보도 6자 안보정상회담을 새로운 게임의 방식으로 제안하고 있다. 클린턴 정부 시절 폐리 대북정책조정관의 ‘폐리 프로세스’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북미관계의 반전을 가져왔던 모델로 우선 미국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14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중요한 과제는 조속한 북핵 협상 재개의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과 함께 싱가포르 선언을 바이든 정부가 계승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로 드맵 작성과 싱가포르 선언의 계승 그리고 조속한 북미 대화 재개, 그리고 대북제재 완화 및 철회를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는 한미정상회담을 비롯한 의원외교, 미국 시민사회와의 협력 및 공동 캠페인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한 총력전을 펼쳐야 할 것이다.

15

현 단계 최우선 과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작동하는 것이다.

16

2018년 한반도의 봄을 되돌아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평창동계올림픽 북한선수단 참여, 4·27 판문점 회담, 싱가포르 북미회담, 9·19 평양회담 등의 일정이 숨가쁘게 진행되었다. 2018년 과정을 되돌아볼 때 주목할 점은 남북 간의 대화와 합의가 북미대화를 만들어내는 중심 동력이었다는 점이다. 2018년 11월에 설치된 한미워킹그룹이 남북 간 동력을 통제하고 관리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그 동력이 약화되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17

결국 북미간 비핵화 협상(다자간 협상의 형식이라 할지라도)은 남북간의 자주적인 대화와 합의 그리고 교류협력의 일상화를 토대로 지속될 수 있다. 싱가포르 북미회담 과정에서 겪었던 미국의 횡포나 하노이 회담이 미국 내부 정치에 활용되면서 실패한 점들은 더더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동력이 남북한의 신뢰와 연대로부터 나오며 ‘우리민족끼리’라는 4·27 판문점 선언정신에 깊게 뿌리 내리고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18

자주와 민족대단결의 원칙은 항상 한미동맹과 대북제재 그리고 남남갈등의 틀에 의해 관리되고 위축되어왔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교류사업에 대해 미국대사나 UN 사령부, 한미워킹그룹이 보여준 주권침해 행위나 방해 행위에 대해 한국 정부는 한없이 무력했다. 이런 자세로는 한반도 평화를 향한 고되고 거친 항로를 헤쳐 갈 동력을 결코 얻어낼 수 없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가동에 정부의 주권적이고 자주적인 재정비가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19

바이든 정부는 취임과 동시에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할 것이다. 바이든 대선공약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 기후변화 대응을 중심으로 한 그린뉴딜에 집중되어 있다. 중국과 유럽연합을 견인하면서 기후변화 세계체제의 구성과 ONE 톱 글로벌 리더쉽으로 복귀하는 것으로부터 Buy America, 일자리와 미국경제의 재건 등이 함께 물려있는 그랜드 프로젝트이다.

20

미국의 기후변화 세계전략을 여기서 다룰 문

제는 아니지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해서 주목되는 부분은 전 지구적 공동의제인 기후변화 영역이 대북제재와 어떻게 관계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북한은 이미 2019년 12월 UN 기후회의를 통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발표하였다. 북한은 16.4%는 자체 노력으로, 그리고 36%는 국제적 연대와 협력으로 감축하여 총 52.4%를 감축하겠다는 놀라운 목표를 제시하였다. 남한은 이때 감축 목표조차 제시하지 못해 ‘기후 악당국’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했다.

21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정책은 협력과 경쟁의 구도로 진행되겠지만 상당 부분 적대적 경쟁관계의 틀이 무역 외교 등의 영역에서 진행된다면, 기후영역은 협력의 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기후영역에서 전략적 성과를 거두고 무역 라운드의 형태로 완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중국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기후영역이 상대적으로 미중 협력의 공간이 될 것이라는 점은 기후영역이 대북제재에서 제외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적 협력에 대한 파리기후 협약 6조와 8조의 내용 또한 제재를 넘어 남북 간 기후협력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2

남과 북은 한반도라는 지리적 공간을 공유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은 남과 북이 동시에 타격을 입고 있는 영역이며 북측의 자연재해는 상당한 경제적 피해로까지 이어졌다. 북측의 온실가스 감축계획 목표는 전향적이며 36%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의 요청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기후 공동체 공동선언과 공동과제의 발굴로 응답해야 할 것이다. 그런 장치물, 그린펀드를 포함한 녹색산업 등 기후영역을 축으로 공동번영과 균형발전의 우선적 경로로 설계해 나가야 할 것이다.

23

2020년은 한국전쟁 70년이 되는 해였다. 한국 시민사회는 종전 캠페인과 평화협정 체결을 3년 내로 실현하기로 결의하고, 2023년까지 전 세계 1억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는 Korea Peace Appeal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 서명은 UN과 미국에 전달될 것이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마지막 냉전의

동토 한반도에 평화가 뿌리 내리도록 세계 시민과 함께 노력할 것이다. 2021년 1월 13일에는 이런 시민사회의 의지를 담아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우리의 종전의지를 담아 바이든 당선인 측에 의견을 전달하였다.

24

2021년 4월 보궐선거로부터 한국사회는 급속히 2022년 대선 정국으로 진입해 들어갈 것이다. 특히 여름을 지나 하반기부터 평화 의제도 대선정국에 블랙홀처럼 빠져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사회를 거점으로 형성되어 있는 평화통일운동 단체와 조직들도 대선 정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광범위한 조직적 집결과 대중과의 접촉점을 만들어내고 대통령선거를 평화를 위한 축제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적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대선 후보들에 대해 평화협정 체결 추진 공약 등을 시민의 이름으로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북미 대화의 조기 재개를 위해 시민사회의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 정부뿐 아니라 UN과 미국을 압박하는 일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독립운동歌 복원 프로젝트 <100년의 소리>

-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이 다시 부르는 노래

이 은지 (YTN라디오 뉴스제작팀장)

YTN라디오는 민족문제연구소 자문,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 제작지원으로 지난 해 11월부터 독립운동가들이 남긴 독립운동歌를 생존 독립운동가와 그 직계 후손의 육성으로 직접 녹음하고 채보하여 독립군과 복원과 기록, 보급에 힘쓰고 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복원된 독립운동가는 현재까지 10여 편에 이르며, 올해 가을까지 꾸준히 지속될 예정이다. 특히 살아있는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이 독립운동 당시를 회상해서 들려주는 이야기는 역사적 기록물로도 가치가 깊어, 청취자들은 자연스럽게 노래와 함께 일상의 한 부분으로 독립 정신을 받아들일 수 있다.

문화 콘텐츠로 복원된 독립운동가는 매일 5회 FM 94.5MHz YTN라디오를 통해 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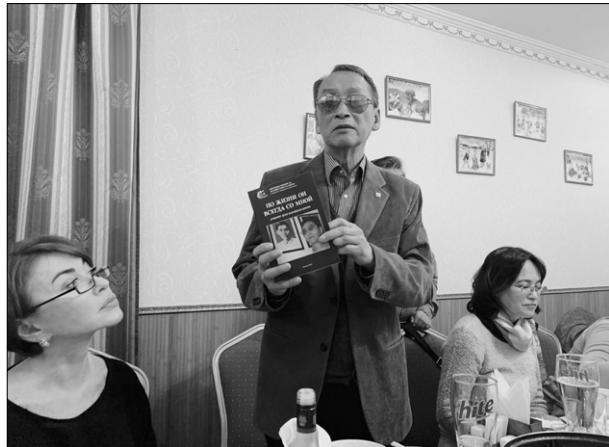
이 모든 이야기는, 러시아에서 만난 최재형의 후손으로부터 시작되었다

2019년 겨울, 영하 20도 내외를 오르내리던 모스크바의 혹독했던 그 밤에 최재형의 후손 발렌틴 최 선생을 만났다. 아리랑이 흘러나오는 한식당이었다. 당시 YTN라디오는 특집 다큐멘터리 <서간도 독립운동가 無名씨의 꿈>에 이어 <해간도연가>를 제작하기 위해 러시아 전역에 흩어진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취재하고 있었다.

“저를 비롯해서 후손들의 가장 큰 역할은 그 기억들과 역사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우선 기록을

해놓으면, 어쩌면 후대의 후손들이 그 뒷일을 감당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흩어

진 독립운동가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기록해놓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기록할 수 없는 시대를 사셨으니까요.”



고 발렌틴 최 선생

그 겨울의 눈이 다 녹기 전, 발렌틴 최 선생은 불의의 사고로 고인이 되었고 그의 말은 유언처럼 우리에게 빛으로 남았다.

이등박문을 처단하러 가는 길, 안중근 의사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 안에서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

긴 세월 치러졌던 청산리와 봉오동 일대 전투에서 우리 독립군들은 군가로, 또는 망향가로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 서대문 형무소 여옥사에서 울렸던 유관순 열사의 노래는 무엇인가. 망명 독립운동가들이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 국경을 넘으며 불렀을 것으로 추정되는 노래가 있다던데. 독립군 장교를 양성했다던 신흥무관학교에서는 매일 아침 애국가와 함께 불렀던 교가가 있었다더라.

그 많았다던 항일투사들의 피와 눈물이 담긴 가락은 모두 어디로 사라졌을까. 두만강을 넘으며, 거사를 위한 열차 안에서, 사선을 넘는 독립 전투 중에도, 일제를 피해 도망갈 짐을 싸던 만주벌판에서도 불리어 전해진 깊고 고운 노래들은 지금 어디까지 남아있을까.

故 발렌틴 최 선생의 말처럼, 기록으로 남길 수 없었던, 구전으로만 전해져오던 ‘100년의 노래’를 기록하고 보존해서 후대에 넘겨주는 일, 고단한 조국 독립투쟁의 삶 속에서 구전으로 남은 깊은 울림들을歴史로 만드는 일, 빛진 마음을 갚는 심정으로 YTN라디오가 2020년 겨울, 사라져가는 독립운동가들의 노래 ‘백년의 소리’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왜 첫 곡은 ‘국치추념가’ 이어야만 했을까

‘경술년 추팔월 이십구일은…’ 잊지 말자 잊지 말자,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하자, 다짐하고 되새겨 가슴에 한을 못 박듯 날짜를 꾹꾹 눌러 박으며 시작하는 이 노래는 ‘국치추념가’다. 독립군가 복원 프로젝트 첫 편을 제작하기 위해 이준식 독립기념관장을 찾았을 때, 그는 독립군가 복원은 무조건 국치의 치욕스러운 기억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라를 빼앗겨 종 설움당하는 설움을 기억하자. 우리 민족에게 가장 부끄러운, 나라 잃은 날에 우리 민족은 모두가 짚었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불렀지요. 설움을 극복하려면 반드시 독립을 이루자. 결의를 다지는 노래입니다. 이 민족적 결의와 다짐이 독립운동의 불씨입니다.”

아픈 역사를 언젠가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수치를 반드시 기억하고, 노래로라도 만들어 후손 대대로 기억을 물려줘야 한다는 이 관장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국치추념가’를 부르며 프로젝트의 문을 열었다.

8월 29일의 부끄러운 기억이 그저 옛날이야기로 박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이야기로 만들기 위해 광복군 총사령관 지청천 장군의 외손자이자 여성광복군 지복영지사의 아들 이준식 독립기념관장이 부르는 국치추념가가 11월 첫 주, 완성되었다.



이준식 독립기념관장

어머니가 부르던 노래, 고아원에서 나를 살게 하던 그 노래

석주 이상룡 선생 증손자 이항중 선생을 찾아갔다.

나라가 망하자, 봇 잡던 손으로 칼을 잡고 가산을 모두 정리해 만주 땅으로 망명한 시대의 선비. 선비는 강을 건너면서 망국의 군인이 되었다. 그의 선친은 허허벌판 남의 땅 위에 해외독립운동기지의 요람, 독립군 양성소 신흥무관학교를 세워 최정예 독립군을 키워냈다.

“서북으로 흑룡대원 남의 영절의 여러 만만 혼원 자손 업어 기르고 동해 섬 중 어린 것들 품에다 품어 젖먹여 기른 이 뉘뇨”

생도들이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애국가와 함께 이 교가를 부르며 훈련을 시작했다고 한다. 신흥의 전통이었을까, 우리 독립군 부대는 소규모이든 대규모이든 군가를 제정해 애국가와 함께 부르며 민족적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한다.

이항중 선생은 막힘없이 백 년 전 독립군 훈련생도들의 교가를 술술 불렀다.

- 선생님 어쩜 이렇게 잘 부르세요?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이 노래를 항시 불러줬어요. 해방 후에 내가 삼대 독립운동가의 아들인데도 고마원엘 갔거든요. 그때도 늘 이 노래를 불렀지, 어머니가 부르던 노래.”



이항중 선생과 이은지 YTN라디오 뉴스제작팀장

석주 선생의 증손자 이항중 선생이 고된 생을 살아오는 동안 베풀어준 고목 같은 노래, ‘신흥무관학교 교가’를 세 번째 독립운동가로 복원했다.

97세 노장 광복군이 기억하는 태극기, 그리고 압록강

생존 한국광복군 김영관 선생을 뵈었다. 1924년생, 올해 97세다. 그의 증언은 귀했다.

“일본에서 징병을 해갔어요. 끌려가면서도 나는 그랬지. ‘내가 왜놈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일은 없을 거다.’ 결국 탈영해서 천 킬로미터쯤 걸고 또 걸어서 한국광복군을 찾아갔어요. 사선을 무수히도 많이 넘었습니다. 광복군이 되던 날, 소문으로만 듣던 완전한 태극기를 처음 봤어요. 그때 무슨 생각을 한 줄 아십니까?”

아아, 이분들에게 대체 나라가 무엇이기에, 감히 그 무게감이 상상조차 되지 않던 순간이다.

“내가 이 태극기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치겠다. 생도 사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결심은 변함이 없어요.”

김영관 지사는 마디마다 주름진 손으로 박수를 치며 노래를 불렀다.

“우리는 한국광복군 조국을 찾는 용사로다! 나가 나가 압록강 건너 백두산 넘어가자!”

꿈에도 잊힐 리 없는 전우의 이름도 나직이 불렀다. 뒷간에서 일 보는 척하다가 같이 탈영했다던 광복군 전우의 이야기는 김 지사를 웃겼다가 또 한참을 울렸다.

“우리 국민 모두에게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쓰라리고 아팠던 통한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서 오늘과 내일을 대비하며 살아주세요. 각자 자기 위치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큰소리 치지 말고, 남 탓하기 전에 ‘난 뭘했나’ 통찰하는 마음으로 남을 대하면서요. 나는 그게 나라를 구하는 일이고 애국하는 일이고 독립운동보다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의 마지막 말을 고이 담는다.

광복군이 어쩌면 압록강을 건너며 불렀을 노래 ‘압록강 행진곡’이 살아 있는 1지대 2소대 김영관 한국광복군의 목소리로 살아났다.



김영관 지사

거지로 살아온 두 사람이 흐느끼며 부르는 노래

1년 365일 태극기가 휘날린다는 집, 동암 차리석 선생의 늦동이 아들을 만나러 갔다.

백범 선생이 임시정부에서 직접 지어줬다는 이름은 학창시절 내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살아야 했다. 어머니가 ‘독립운동가의 혼적을 지워야 산다’고 당부했다는 것이다. 그는 차영조가 아니라 신영조였다.

해방된 조국에서 그의 신분은 거지였다. 어머니는 아침에 밥바가지를 들고 동냥을 다녔고, 자신은 학교 대신 여관, 국밥집을 다녔다. ‘보이’라고 부르던 심부름꾼으로 삽을 받아 하루 한 끼 겨우 얻어먹었다고 했다. 책가방보다 아이스깨끼 가방을 더 많이 들었다는 거지 신영조는, 오늘도 태극기를 내걸었다.



차영조 선생

“대개 독립운동하신 선열들이 태극기를 마음껏 단 한 번을 흔들어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잖아요. 목숨 바쳐 사랑한 태극기인데도요. 천상에 계시는 제 부친과 선열들이 내려다보시고 위로를 받으시라고, 매일 태극기를 하늘을 향해 걸어둡니다.”

그의 독립운동가는 ‘격검가,’ 안창호 선생이 만든 노래다. 동암 선생은 도산 선생이 설립한 대성학교 교사로 부임하면서 독립운동가의 길에 들어선다.

2시간여 인터뷰 도중 내내 울먹었던 사내가 있었다.

“어렸을 때에는 어머니 아버지 원망만 했거든요. (울먹) 그 가난이라는 게 (훌쩍) 당시는 독립운동가 자식이라는 게 원망만 할 정도로 싫었으니까요. (울먹) 너무 힘이 드니까 사는 게… 이성이라는 걸 찾을 수가 없었어요….”

광복군 장이호 지사의 장남 장병화 선생은 회상을 할 때마다 울었다.

광복군 자식이라서 찢어지게 가난했던 어린 시절이 서러워 울었고, 독립운동을 한 부모를 원망하고 미워했던 자신이 한스러워 또 울었으며, 이제와 생각하니 그 부모가 결국 해방된 조국에서 동포의 총에 사살됐다는 사실이 안쓰러워 흐느꼈고, 그때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역사적 현실에 부끄러워 눈물이 끊임없이 흘렀다.

배가 고파 가족을 버리고 서울역의 거지가 됐던 그의 이야기는, 눈물과 함께 ‘광복군 아리랑’이 되어 열 번째로 복원된 독립군가가 되었다.



장병화 선생

임정동이가 말한 ‘그 날의 기억’

임시정부기념사업회의 문을 열었다. 영원한 임정동이 김자동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장은 약속된 시간보다 빨리 도착해 손녀뻘 PD를 기다리고 있었다. 벌써 그와의 네 번째 인터뷰다. 인터뷰를 할 때마다 상이한 프로그램을 들이밀었었다. 김 회장은 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았다. 그 중에서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어느 한 날의 기억이 있었는데, 바로 ‘그 날’의 이야기였다.

“그 날, 그 날이었어요. 왜놈들이 항복하던 날”

8월 15일 남의 땅에서 맞은 광복의 기쁨을 그는 ‘딱총’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충청에서 부친 김의한 선생, 모친 정정화 여사와 셋이 살던 어느 날 밤 일본의 항복 소식이 전해졌다고 한다. 너무 좋아 밤새 ‘싸돌아다니며’ 중국 사람들의 딱총 연기 사이를 헤집고 다녔다고 했다.

“좋았지, 좋았어. 왜놈 항복했으니 곧 귀국할 거야,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

해방되던 날의 기억을 전해주는 김 회장의 표정은 꼭 청년처럼 밝고 싱싱했다.

들려준 해방의 기억 중에, 귀국선이 정박한 부산항에서 콜레라 방역을 해주던 경찰들 이야기는 내심 씁쓸하게 했다. 일제에 부역했던 친일 경찰들이 그대로 남아, 살아남아 귀국하는 독립운동가들을 겸문하더라는 웃픈 이야기. 시민들이 임시정부 귀국 소식을 몰랐으나 결국 소문이 돌아 한강



김자동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회장

근처가 인산인해를 이루어 ‘대한독립 만세’로 가득찼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줄 때는 전신에 감격이 휘감았다.

김 회장은 충칭에서의 기억을 소환하며 풀어낸 긴긴 이야기 끝에 부친 김의한 선생이 작사한 노래 ‘앞으로 행진곡’ 가사말을 힘주어 읊었다.

“장하도다 한배님 아들딸들은 배달
겨레며 백두산 동해물과 한반도는 우
리 집일세.”

2021년 1월 18일 현재, YTN라디오가 후손들과 생존 독립지사들의 목소리로 복원한 독립군가는 총 10편.

제1편 국치추념가

“저는 광복군 총사령관 지청천 장군 외손자이자 여성광복군 지복영 지사의 아들인 이준식 독립기념관장입니다.”

제2편 안중근 옥중가

“안녕하세요. 저는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이사장 함세웅 신부입니다.”

제3편 신흥무관학교 교가

“석주 이상룡 선생 증손자 이향중입니다.”

제4편 압록강행진곡

“1924년생 그러니까 97세 한국광복군으로 활동했던 김영관입니다.”

제5편 격검가

“저는 임시정부 영원한 비서장, 동암 차리석 늦둥이 아들 차영조입니다.”

제6편 새야 새야 파랑새야

“저는 동학농민군 비서를 역임한 정백현 손자 정남기입니다.”

제7편 신흥학우단가

“우당 이회영의 손자, 이종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의장입니다.”

제8편 독립군가

“만주 별판에서 민족통합을 이끄신 석주 선생의 통합 정신이 오늘날 모든 갈등을 잠재우는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 임청각이 복원되던 날

제9편 앞으로 행진곡

“독립운동가 김의한, 정정화 두 분의 외아들입니다. 김자동입니다.”

제10편 광복군 아리랑

“저는 광복군 장이호 지사 장남 장병화입니다.”

과거를 회상하다가 만난 ‘미완성 꿈,’ 독립운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만난 이분들을 통해 공통적으로 보게 된 한 가지가 있었다. 누구는 무력으로, 누구는 교육으로, 누구는 섬김으로, 또 누구는 평화운동으로… 독립을 이루기 위해 방법론으로 취한 입장과 노선은 달랐을지 모르겠으나, 독립운동가들 모두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하게 같았다.

꿈.

독립운동을 한 모든 분들이 가졌던 꿈.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적인 나라, 그 국민이 자유롭게 더 평등해지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꿈. 그러니 민족이 분단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완전한 자주독립국가의 국민이 되겠다는 꿈. 이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러자 백년 동안 풀지 못했던 숙제가 보였다.

“민족 통합을 이루는 것이 우리 후손들에게 맡겨진 책무입니다. 독립운동은 옛날에 완성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어 진행 중인 미완성의 문제입니다.”

– 이준식

“안중근 의사를 남북 팔천만 겨레 마음속에 모시자. 조국의 독립을 염원하는 안 의사의 의지를 마음으로 잊자.” – 함세웅

“처음 금강산 관광을 갈 때 난 사진을 가지고 갔어, 아버지 사진. 아버지가 해방됐는데도 못 가보는 금강산을 너무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 차영조

“동학농민군이 지향했던 자주·평등·평화·인권이 실현되는 나라를 제대로 건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좌표인 거죠. 반쪽만 그런 나라이 게 아니라 우리 민족 모두가 그런 나라에서 살기를 바라요.”

– 정남기

“제가 독립운동은 못했지만, 평화운동이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독립운동가들은 결코 남북이 분단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미완성 독립 상태인 거죠 지금 우리는. 평화운동, 통일운동은 진짜 한 번 영끌해보려고요.”

– 이종걸

“독립운동은 남북,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만주 별판에서 민족 통합을 이끄셨던 석주 선생의 통합 정신이 오늘날 모든 갈등을 잠재우는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 이항증

“마지막으로 후손들한테 충고라든지 이런 것은 내가 할 것이 없어요. 다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까. 다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바란다는 거지요. 면 훗날이지만 서서히라도 통일의 그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라는 거지. 우리 손자 때에는 되겠지?”

– 김자동

“저한테 남은 숙제는 통일 문제입니다. 제 세대에서 다 이루지 못하면 다음 세대에서도 해야죠. 통일이 되고 문화가 발전하고 남의 나라 침공을 막을 힘이 있는 나라… 우리가 할 일이에요.”

– 장병화

내 귀에 들린, 독립운동가들이 남겨 놓으신 숙제. 내 눈에 보인, 그분들의 미완성 꿈. 하나된 완전한 해방 조국, 평화롭고 평등하고 자주적인 독립 조국을 이룩하는 꿈. 이 글을 읽고 계신 모든 분들의 눈과 귀에도 백년의 이 소리가 들리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복원된 독립운동가에 남긴 이야기 조각 몇 가지를 덧붙인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후손들의 고찰을 담았다.

“자기 부모를 존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거짓말하지 말고 약속을 잘 지키는 것. 이렇게 사람이 바로 서고 역사도 바로 세워졌으면 참 좋겠다.”

– 이향증

“각자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 큰소리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나는 뭘했나’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야지. 그게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애국하는 것이지.”

– 김영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희생하신 선열과 조상이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지요. 이 의식을 후손들에게 심어줘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엄청 중요한 거죠.”

– 차영조

사라져가는 과거 100년의 기억을 기록하려다 우연히(혹은 필연적으로) 만난 독립운동가들의 미완성 꿈과 우리에게 남겨주신 숙제가 끝나지 않는 한, YTN라디오에서는 100년 동안 이어져오는 이 노래들을 계속 부를 것이다.

연출 이은지
구성 홍기희



잃어버린 세대가 되지 않으려면

‘잃어버린 세대’

1990년대에 태어난 이삼십 대 나이의 청년들에게
대한민국이 붙여준 이름이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무언가를 잃어버렸다.
연애, 집, 인간관계는 물론이고 특정하기 어려울
만큼 무수히 많은 것들을 성취해보지도 못한 채 잃어버려야 하는 이 시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더러 ‘미래의 주인공’이라고 한다. 공허하게도.

그래서 자꾸만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에게 마음이 간다. 소중한 걸 잃었는데도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냈던 사람의 서사를 가슴에 하나쯤은 품어야, 그나마 우리의 현실을 마주할 용기가 생길 것 같았다. 나의 가슴에 간직하고 나아갈 사람, 내가 찾은 사람은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였다.

일제강점기,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나라를 잃었다.

전쟁이 일상인 시대였다. 나라를 잃은 상황에서 ‘나’라는 존재는 성립될 수 없었다. 인간의 존엄성은 무너졌고, 노예나 전쟁 물자 취급을 받았다.

무수한 삶 중에서 독립운동가에게 눈길이 갔던 이유는, 그들이 영웅이 아닌 ‘마음’을 지닌 한 사람으로 시대를 견디려 한 것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들은 나에게 ‘잃어버린 세대’라는 타이틀에 ‘그럼 두려운 감정마저 잃어보자’ 하고 덤빈 전사로 보였다.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 더 많은 것을 잃어야 했던 시대. 사람이 사람이길 포기하고, 산 자가 죽은 자를 부리워하는 시대에 그저 인간으로 남아 역사를 짊어지겠다는 당시 청년들의 소신이 나의 마음속에 따뜻한 씨앗을 심어주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그 씨앗은 내가 이 시대를 마주 볼 의지와 온기가 되어주었다.

어려운 시대를 만난 청년들이 무수히 좌절하고 고뇌하며 피를 흘렸다는 사실이 멀게만 느껴지지 않았다. 지금은 그때만큼 대의를 위한 싸움도, 치열한 전술로 화려한 승전고를 울릴 수 있는 싸움도



김 수 빙
청년위원

아니다. 개인의 목표는 세분화 됐고, 각자가 바라는 세상은 더욱 다양해졌다. 그래서 21세기 청년들은 20세기 청년만큼이나 (혹은 더 치열하게) 싸우고 있지만 소리가 없다. 쉬지 않고 투쟁하지만 항상 꽂길만 바라는 응석받이처럼 보인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겠지만 이 시대의 청년 역시 밥을 먹으면서, 울고 웃으면서, 걸으면서, 꿈속에서도 쉬지 않고 싸운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청년들의 투쟁과 죽음에 더욱 마음이 갔는지 모른다. 그들의 얼굴에서 지친 자의 편에 서서 목소리를 내는 오늘날 청년들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그때가 2017년, 내가 대학교 동양화과 1학년 때다.

문득 서대문형무소에 있는 ‘사형장 미루나무’ (사형장 담장 밖의 미루나무를 ‘통곡의 미루나무’, 담장 안에 심어진 미루나무를 ‘사형장 미루나무’ 라 부른다. 1923년 같은 날 심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사형장 안의 미루나무는 가늘고 작게 자랐고, 사형장 밖의 미루나무는 성인 여러 명이 껴안을 정도로 크게 자랐다.)가 보고 싶었다. 같은 해 3월에 사형장 미루나무를 보고 왔을 때의 가슴 저릿한 기억이 광복절이 되자 되살아났다. 그래서 혼자 버스를 타고 서대문형무소에 도착하자마자 사형장으로 향했다. 그런데 담장 안에 서 있어야 할 미루나무는 온데간데없고 둑치만 남아있었다. 그것도 단면을 깨끗하게 자른 것이 아닌, 안에 톱밥 부스러기만 가득 남은 부러진 형태의 둑치였다. 너무 놀라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러자 사형장 오른쪽 담장에 금줄과 쓰러진 미루나무의 잔해가 가지런히 모여 있는 것이 보였다.

관리인이 쓰러진 미루나무를 함부로 버리지 못하고 사형장 한쪽에 고이 모아둔 풍경이 날 주저앉혔다. 울음이 터졌다. 겨우 담장 하나였다. 그 간단한 차이를 두고 극명하게 갈린 두 나무의 운명에 독립운동가들의 원통함이 사형장 안의 미루나무를 잘 크지 못하게 했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다. 심지어 미약하게나마 생명을 유지하던 사형장 미루나무가 힘없이 쓰러져 버렸으니, 나라의 독립을 보지 못하고 억울하게 순국하신 분들의 깊은 한을 목격한 것 같아 너무나 가슴이 쓰라렸다. 그래서 이 마음을 화폭에 담아야겠다고 결심하고 그려낸 작품이 바로 ‘통곡의 미루나무’다.

화폭 안에 쓰러진 미루나무의 밑동과 담장 밖의 미루나무를 동시에 담았고, 어두운 밤에도 두 눈을 빛내며 사냥을 하는 부엉이를 어두운 시대에도 밝은 눈으로 대한의 독립을 향해 나아갔던 독립운동가로 형상화해 보았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들꽃을 밑동 주변에 배치하여 미루나무가 뿌리 내린 곳이 대한민국임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미루나무는 독립운동가들의 원통함을 지고 쓰러졌지만, 그곳을 찾는 후손들은 여전히 그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마음을 표현한 작품이다.



통곡의 미루나무, 2017,
116.8 × 91.0cm, 순지에 분채

였다. 그렇게 더 몰입하다 보니 과거보다 오히려 현재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일제강점기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에서 내가 어렸을 적에 사회에 막연히 품어온 부조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분단, 친일청산, 식민사관, 제국주의의 자본화, 자본화된 신분 사회 등 역사를부터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 파악해야 했다. 그려야 할 그림과 전하고픈 메시지가 의무감으로 떠올랐다.

그러다가 삼일혁명 ·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 의열단 100주년을 맞은 2019년에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가 주최한 ‘신흥무관학교 옛터 답사’에 참여할 기회가 생겼다.

사실 이 해는 내가 100주년과 연관된 활동들을 해보고자 휴학을 결정한 상태였다. 답사는 처음이었던 탓에 긴장도 하고 공부도 정말 많이 했다. 답사 전날에는 긴장하고 떨렸던 탓에 잠도 한숨 못

이 그림을 수업시간에 발표하자, 동기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물어오기 시작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나도 그 시대에 살았으면 독립운동을 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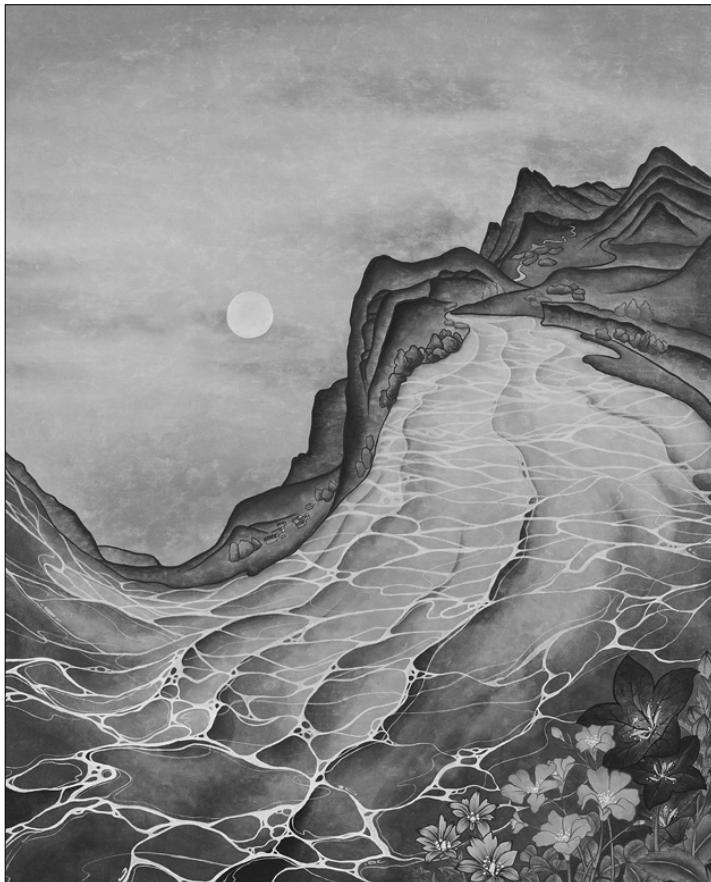
‘서대문형무소에 한 번 가봐야겠다. 같이 가줘.’

나는 이때 처음으로 그림도 문자처럼 아니, 문자보다 더 강하게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체험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작품을 세상에 내놓고 싶은지도 이때 어렵 뜻이 깨달았다.

일제강점기를 공부하면 할 수록 20세기 청년과 21세기 청년의 고민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 독립운동사에 더욱 매료되기 시작하

잤다. 그러나 현장에 막상 발을 디디니, 만주 들판에 심어진 옥수수들이 모두 독립군으로 보였다. 흐르는 강줄기 옆으로 조선인들이 논일하는 환영이 보여서 답사 내내 목이 꽉 막히기도, 온 내장이 떨리기도 했다.

답사의 마지막 코스는 압록강에서 배를 타는 것이었는데 이때 4박 5일 동안 쌓아왔던 감정이 한 순간에 터져 나왔다. 중국인이 탄 배의 갑판에는 사람들이 중국 땅과 북한 땅을 번갈아서 구경했지만, 한국인이 탄 배는 사람들이 모두 북한만 쳐다보고 있었다. 우리 역시 북한을 바라보며 강가에서 고기 잡는 북한 아이들과 인사를 나누고, 자전거를 타고 강변을 지나는 동포에게 ‘통일합시다’를 외치며 함께 웃기도 했다. 특히 우리의 인사에 함께 호응하며 손을 흔드는 동포를 보자 신기하고 기쁘기보단 억장이 무너지는 듯했다.



압록의 마음, 2019,
80.3 × 65.1cm, 중성지에 분채

중국 땅을 통해 국경이 없는 강 위에서 북한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민족의 현실이 마음에 사무쳤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이 압록강에 나룻배를 띠워 중국으로 망명하였을 생각을 하니,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조국의 ‘진정한 독립’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두로 지진 듯 피부에 뜨겁게 와닿았다. 그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그린 그림이 ‘압록의 마음’이다.

압록강과 동틀 넓 하늘을 태극의 모양으로 배치하였고, 북한 땅의 산맥을 본떠 우리 민족이 수없이 넘어왔던 ‘아리랑 고개’의 의미를 담아 산을 표현했다. 화폭 아

래 우리나라의 들꽃은 조선의 향기가 중국에 묻힌 독립운동가들에게도 닿기를 염원하며 그려 넣게 되었다.

시대는 빠르게 변한다. 그 흐름에 우리 의지는 과연 얼마나 개입되어 있을까? 사람들의 가치관은 다양해졌고, 물을 부어도 뭉쳐지지 않는 톱밥처럼 서로 끊임없이 흩어지고 방황한다. 그 속에서 변치 않는 자신의 중심을 유지하는 건 눈물 쏙 빠지도록 고통스러운 일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일제강점기를 공부하면서 지금의 나, 지금의 우리를 직시할 수 있었다. 역사를 아는 것은 세상이 지금의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게 할 단서일 수 있다.

잃어버리면, 다시 찾으면 된다. 하지만 잊어버리면, 돌이킬 수 없다.

일제강점기 치열하고 간절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가슴속에 남아있듯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이야기도 어느 미래의 방황하는 누군가의 가슴속에 씨앗이 되어주길 간절히 소원해본다.

나는 앞으로도 소중한 사건을 가슴속에 간직한 채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와 시대의 고민을 화폭에 담아내고 싶다. 

민족 정론지로 둔갑한 민족 반역지

- 뉴스타파 다큐멘터리 영화 <족벌 두 신문 이야기>를 보고 -

족벌(族閥). 큰 세력을 가진 가문의 일족이라는 의미이다. 씨족 사회나 신분제 사회도 아닌 현대 사회에서 족벌이라니, 그것도 ‘족벌 신문’이라니.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사실과 진실 그대로 만을 전 달해야 할 언론, 신문사와는 꼭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그러나 다큐멘터리 영화 <족벌 두 신문 이야기>가 파헤쳐 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그 이질감을 비웃기라도 하듯 이 땅에 자신의 세력을 깊이 뿌리박고 있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두 신문사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이들은 마치 조선말 세도정치 세도가처럼 우리 사회 정치, 경제, 사법계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지금도 덩치를 불리며 대한민국을 좀먹고 있다.



황현지
청년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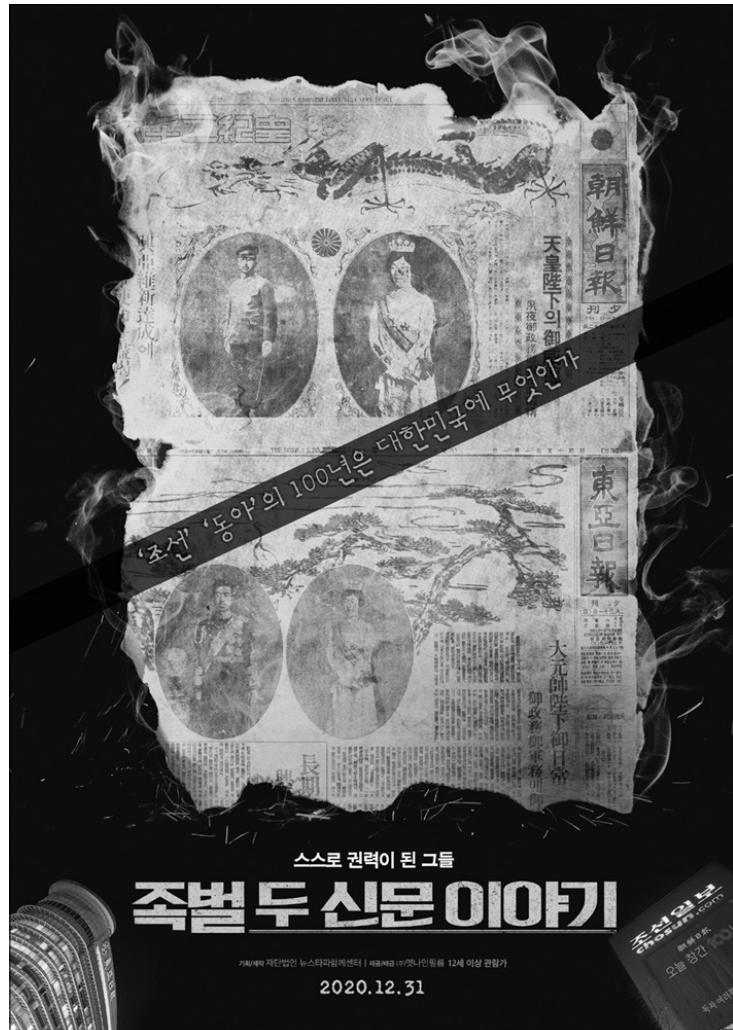
일제의 앞잡이

이 두 족벌 신문사들이 어떻게 이렇게 세력을 키웠는지 제대로 알기 위해선 먼저 그들의 뿌리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동은 올해로 창간 101년을 맞이하는 오랜 신문사들이다. 해방 후 친일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일제강점기부터 존재했던 재력 및 권력의 출처를 짐작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아니나 다를까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성장 배경에도 역시 친일 매국이 있었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부당한 권력에 아부하고 협조하며 자신들의 세력을 키워나갔다. 나아가 이제는 신문사 스스로가 정·재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대 언론기업이 되고 말았다.

‘조·동은 친일행적이 있는 신문사다’라는 건 대부분 국민이 아는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친일하고 매국했는지 세부적인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나조차도 조선일보가 일제강점기 당시 일왕 부부 사진과 찬양하는 기사를 1면에 실었다는 사실을 대강 알았을 뿐,

그 빈도나 사용 단어 등 구체적인 친일행적 내용을 알지는 못했다. 전직 조선일보, 동아일보 기자들조차도 입사 후 신문사에서 보관 중인 당시 신문을 보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던 사실이라고 하니 어찌 보면 당연할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자칭 ‘민족정론지’들의 친일행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1937년 1월 1일, 조선일보 1면 중앙에 당시 일왕히로히토 부부 사진이 크게 실렸다. 이는 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에서나 볼 수 있는 편집으로, 일제 강점기임을 고려하더라도 민족지라며 한글로 발행되는 신문에서는 처음 있는 파격적인 일이었다. 일왕 부부에게 생긴 대사건을 보



도하는 기사도 아니었다. 그저 설날 아침 궁중 의례를 전하는 소식이었다. 일왕 부부의 사진은 눈쌓인 소나무 그림과 봉황 이미지, 일본 왕실을 상징하는 국화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조선일보는 일왕을 ‘천황폐하’로 칭했고, 임금의 손을 높여 부르는 ‘어수(御手)’, 임금의 옷을 높여 부르는 ‘어포(御袍)’ 같은 극준칭 단어를 동원해 일왕을 찬양했다. 사진 왼쪽에는 조선 총독 미나미 지로의 사진과 함께 그의 신년사를 실는 일도 잊지 않았다.

이를 시작으로 조·동은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 1940년 8월 폐간될 때까지 새해 첫날에 일왕 부부의 사진과 일본이 행하는 침략전쟁 찬양을 크게 실었고 심지어는 신문 오른쪽 맨 위에는 붉은 일

장기까지 넣었다. 일장기 인쇄를 흑백으로 했는지, 컬러로 했는지는 이때까지 갑론을박이 많은 사안이었는데, 빨간색이 선명한 일장기와 일왕 부부 사진이 실린 1940년 1월 1일 치 조선일보 1면 자료가 공개되었다. 당시 컬러 인쇄가 귀했음을 감안하면, 조선일보가 얼마나 공을 들여 일제를 찬양했는지 알 수 있다.

동아일보 1대 사주 김성수는 일제 찬양을 넘어 조선 청년들을 태평양 전쟁의 총알받이로 내몰았던 인물이다. 1937년부터 시국강연 연사로 활동하며 일제의 전시동원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1938년부터는 일제가 우리를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해 만든 관변단체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곳이 없었다. 그는 강제징병에 대해 “2,500만 동포의 일대 감격”이니 “징병제로 말미암아 명실상부 한 황국 식민의 자격을 얻었다”라고 말하며 친일매국 최전선에 있었다. 참으로 ‘민족반역지’ 사주에 걸맞은 행보였다.

그런데도 1988년 국회 언론청문회에서, 당시 조선일보 사장 방우영과 동아일보 명예회장 김상만은 두 신문의 친일행적을 인정하거나 반성하기는커녕 ‘친일’이라는 말이 모함이라며 역정을 내고 오히려 자신들은 ‘민족정론자’였다고 우기기까지 했다. 그들이 보인 뻔뻔한 태도에 ‘정말로 자신 선대가 한 짓을 모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혀웃음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나도 그들을 마냥 비웃을 처지는 아니었다.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본관 앞에는 인촌 김성수 동상이 있다. 그가 친일파이어서 동상을 철거하느니 마느니 논쟁이 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다큐멘터리를 보기 전까지 동아일보 1대 사주 김성수가 바로 그 동상의 인물인 줄은 몰랐기 때문이다. 고려대학교 학생이었으면서도 관심을 가지고 더 알아보려 하지 않았던 나 자신이 부끄러웠다.

해방 이후에도 여전히

해방 이후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새롭게 등장한 군부 권력에 재빨리 줄을 땄다. 조·동은 독재정권이 쥐어짠 국민의 고혈에 들려붙어 몸집을 더욱 불렸다. 박정희를 찬양하던 두 신문사는 박정희가 죽고 새로 떠오른 권력 전두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 미국이 전두환을 지지한다느니, 전국에서 그를 대통령으로 추대하는 열풍이 불고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기사를 쏟아냈다. 심지어 ‘영웅화’, ‘신격화’ 하는 기사까지 냈다. 조선일보의 ‘인간 전두환’ 기사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일제강점기부터 유구하게 내려온 그들의 특기인 ‘부당 권력 앞잡이 역할’은 해방 후에도 이어졌다.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나자 조·동은 광주 시민들을 폭도와 극렬분자, 난동자, 불순분자로 매도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언론 자유’는 두 신문이 더욱 득세하는 무기가 되어주었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는데, 이젠 권력의 입맛에 맞는 기사가 아닌,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기사를 위해 마음껏 펜대를 휘두를 수 있게 된 것이다. 두 족벌은 정관계 및 재벌과 혼맥을 맺어 세력을 키웠고 조선일보는 방일영 장학회를 통해 많은 법조계 및 엘리트 장학생들까지도 배출했다. 이렇게 두 족벌은 각계각층에 자신들의 입지를 넓혀 거대한 카르텔을 구축했고, 종편 등 수십 개 계열사를 세워 자신들의 캐시카우(cash cow)까지 만들었다. 말 그대로 ‘족벌’이 된 것이다.

돈을 받고 홍보기사를 써주고 그 기사가 실린 잡지를 파는 ‘특판’, 겉모양은 기사지만 사실은 광고인 ‘기사형 광고’ 등 공익을 해치는 반사회적 광고 물량에서도 조·동은 1, 2위를 다투다. 특히 동아일보는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등과 같은 사이비 종교를 홍보하는 기사도 써주어 특판도 했다. 언론의 존재 이유는 권력을 견제하기 위함인데, 언론 스스로가 권력이 되어버리면 누가 견제해야 하는 걸까?

실체를 똑바로 알기

그들이 형성한 세력을 도식화한 그림을 보니 여기저기 전이된 암 덩어리처럼 느껴져 소름이 돋았다. 저 징그러운 것들은 어디까지 자라나서 사회를 좀먹을지. 이쯤 되니 과연 ‘언론개혁’이 가능할까? 하는 회의감과 무력감이 들었다. 이 영화 <족벌 두 신문 이야기>를 보는 내내 느꼈던 감정이다.

이렇게 잘못된 일이 벌성이 자행되고 있는데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아니, 무엇을 할 수 있기는 할까? 분명 회의감이 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일단 뭐든 실체를 아는 것부터가 시작이지 않을까. 당장 내 주변 친구들만 해도 나처럼 김성수가 동아일보 1대 사주라는 사실을 모르는 친구들이 많다. 두 족벌 신문사가 ‘족벌’임을, 그들이 어떤 짓을 해왔는지 명확하게 알고, 주변에 알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

일본 역사수정주의의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부정

관동대지진은 1923년 9월 1일 오전 11시 58분, 일본 관동지방 남부에서 발생했다. 규모 7.9M의 지진은 일본을 공포의 도가니로 빠뜨렸다. 도쿄는 3일 아침까지 지진으로 발생한 화재가 계속되었다. 지진 피해는 사망자 99,331명, 부상자 103,733명, 행방불명 43,746명, 가옥전파 128,266호, 이재민은 약 340만에 달했다. 관동대지진은 자연재해에 그치지 않았다. 극심한 혼란 속에서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켰다는 유언비어가 조직적으로 유포되었다. 계엄령



이 규 수
일본 히토쓰바시대학 한국학연구센터 교수

이 발표되고 자경단이 조직되면서 6천여 명의 조선인이 학살되었다. 관동대지진의 여파로 발생한 민간인 학살은 명백한 인재였다.

일본에서는 ‘역사부정론’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군대위안부 연구자를 비롯해 제국 일본이 자행한 부조리를 지적하는 양심세력에 대한 위협이 가해



자경단에 의한 조선인 학살

지는 상황이다. 역사부정론은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작동된다. 그들은 관동대지진 당시 6천명이라는 조선인 희생자는 과장된 것이고, 설령 조선인이 살해당했다 해도 이는 정당한 방어행위였다고 강변한다.

역사부정론의 대표적인 사례는 넷-우익(Net右翼)의 헤이트스피치(hatespeech-혐오발언)와 도쿄도지사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의 조선인 희생자에 대한 추도사 송부 거부 사태다. 이런 움직임은 관동대지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식민지 지배 전체를 부정하는 네오내셔널리즘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혐한과 배외주의 운동은 일부 계층의 일탈 행위로만 간주할 수 없다. 넷-우익의 선전에 따라 역사부정론에 암묵적으로 동조하는 일반 시민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인 학살에 대한 반성과 추모에 대한 반발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경향을 이해하려면 1990년대 이후 일본 사회에서 대두한 역사수정주의의 움직임과 넷-우익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아야 한다. 90년대 이후의 사회경제적 위기감이 팽배해진 상황을 틈타 일본에서는 역사수정주의가 전면에 대두되었다. 이들은 교과서가 근현대사 부분에서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과 식민지 지배, 전쟁책임 문제 등을 과도하게 강조하여 전체적으로 일본의 ‘어두운’ 면만을 부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선인 학살 문제는 당연히 일본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또 이들은 인터넷 매체를 통해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국가에 대한 일본식 ‘애국심’을 강요하며, 국가를 위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국민 만들기’로 지지계층을 확대하는 중이다.

이들의 주장은 기존 우익인사들만이 아니라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전후 세대의 역사 인식에 직접 영향을 미쳐 넷-우익을 창출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요컨대 90년대에 대두한 교과서 문제를 둘러싼 역사수정주의는 혐한·배외주의 운동의 원류라 말할 수 있다. 역사수정주의는 지식인 계층이 주도하는 시민운동이고 넷-우익은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운동이라는 점에서 차이



조선인 학살을 부정하는 집회

가 있지만, 일본 사회에서 전개된 90년대 이후의 변화양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근원적으로 상통한다.

관동대지진에 대한 역사수정주의의 논리는 관동대지진 당시 6천명의 조선인 학살은 없었고, 따라서 추도식에 추도사를 보낼 수 없다는 것으로 표출되었다. 추도식은 한일 양국의 시민들에 의한 학살에 대한 반성과 추모의 상징으로, 조선인 학살의 역사

를 교훈 삼아 아시아의 평화를 구축하자는 의미에서 여대의 보수적인 도지사들도 추도사를 보내왔다. 그러나 현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는 2017년부터 ‘관동대지진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전’에 추도사를 보내는 것을 거부했다.

자경단에 의해 6천명이 살해됐다는 추모비는 잘못된 것이고, 일본인 또한 나쁘지 않다는 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역사적 ‘진실’이다. 우익단체는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도식과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위령제를 개최했다. 집회에는 “6천명이라는 거짓말에 우호는 없고 사과는 필요하지 않다”는 선전 간판도 세웠다.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의 ‘불령행위’에 자경단이 정당하게 방어한 것이라고 외친다.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한 것이다.

일본의 혐한론과 배외주의의 운동은 한국만이 아니라 아시아 주변국과의 대립을 불러일으킨다. 주변국에 대한 적의를 발동시켜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혐오감으로 전화시키려는 것이 그들의 프레임일 것이다. 관동대지진 당시의 조선인 학살에 대한 부정의 언설도, 추모에 대한 거부감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다. 역사부정론이 팽배한 일본 사회에서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의 기억은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 1923년 9월 1일의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는 자세가 한일연대의 기반이다. 조선인 학살의 실태와 기억을 사회화시키고 전승하는 일이 관동대지진 100년을 맞이하는 출발점이다. 



조선인 희생자 위령비

윌로우스 임시정부 한인비행학교 사적지 보존을 위한 항공박물관 및 기념공원 사업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나라를 되찾기 위해 미국 윌로우스라는 곳에 한인비행학교를 세운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 학교는 세계 10강 대열에 들어간 한국 공군의 효시이며, 한국이 항공우주 분야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게 하는 씨앗이 되었다.

이렇게 자랑스런 선열의 발자취가 오랫동안 방치된 채 관리되지 못하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던 한국 동포들이 중심이 되어 기념사업 주체가 되는 비영리 재단 법인체가 조직되었다. 2016년 9월 22

일 윌로우스 한인비행학교 · 공군기념재단(Willows Memorial Foundation of Korea's First Aviation School & Air Corps)을 캘리포니아 서기국에 등록했다.

학교가 창립될 때 미국 비행교관을 고용한 것, 재정난으로 학교 폐교 21년 후 현 윌로우스 비행장에서 미국의 대일 폭격 훈련이 있었던 것 등을 감안하여 글렌 카운티 공인 사업명 윌로우스 항공기념재단(Willows Air Memorial)도 병행 사용하게 되었다. 한국 동포들이 시작하여 한미 공동의 항공기념재단으로 발전되었고, 윌로우스 사적지 보존 사업은 미국립공원 관리청에서 관리하는 미국 사적지 지정 절차를 밟고 있다. 글렌 카운티의 참여로 항공박물관 · 기념공원 부지도 확보했다.

본 재단 홈페이지 <https://www.willowsairmemorial-korea-america.org/> 에 그 진행 과정이 소개되어 있다.

윌로우스 대한민국임시정부 한인비행학교

당시 미국에 체류 중이던 노백린 장군(1875~1926, 대통령장)은 임시정부 방침에 따라 시애틀을



류기원 (Ki-Won Rhew)
미국 윌로우스 항공기념재단(WAM) 회장



노백린 장군과 레드우드 항공학교 한인 생도 6명(1920년 2월 5일 촬영)
이현희 저『계원 노백린 장군 연구』(2000) 표지

으로 1920년에 2월 20일 캘리포니아 북부 월로우스에 한인 비행학교가 설립되었다.

일본 황궁을 폭격하여 쑥밭을 만들고 독립을 이루어야 한다는 노백린 장군의 가르침을 받으며 맹 훈련을 실시한 학교는 그러나 1921년 폐교된다. 1920년 대홍수로 김종림 지사의 벼농사가 타격을 입으며 재기 불능 상태가 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20년 후 1941년 12월 7일 일본의 진주만 공격으로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었다. B-25 폭격기들이 월로우스 비행장에서 항공 전투 훈련을 하고 1942년 4월 18일 일본 본토 6개 도시를 폭격했다. 이들 80명 승무원 대부분이 미국으로 귀환, 진주만 폭격으로 사기가 꺾인 미국인들에게 자부심을 불어 넣었다. 한인 비행학교 사적지 복원과 함께 미국의 매일 항공 전투 훈련 그리고 월로우스의 항공 역사도 함께 기념하는 것이 월로우스 항공기념재단의 설립목적이요 사명이다.

시작으로 순회를 하며 무장 독립운동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때 한인 청년들이 샌프란시스코 근교 레드우드 항공학교에서 비행기 조종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과 그들의 수업료 일부를 지원하던 김종림 지사(1886~1973, 애족장)에 관해 알게 되었다. 노백린 장군은 즉시 레드우드 항공학교를 방문했고, 김종림 지사를 만났다.

그는 1920년 2월 5일에 레드우드 항공학교에서 Frank M. Bryant(1875~1965) 교관으로부터 비행기 조종을 배우던 장병훈, 오림하, 이용선, 이초, 이용근, 한장호 6명의 생도를 만나 기념촬영을 한다. 그리고 김종림 지사의 혼신적 재정 지원

월로우스 항공박물관의 중심 건물은 복원될 학교 건물

한미 양국의 비행기 조종교육 협력이 1920년 월로우스에서 시작되었다. 학교의 대일 항공전투 훈련(1920~1921) 21년 뒤인 1942년에 미국의 대일 항공 전투 훈련이 월로우스-글렌 카운티 비행장에서 있었다. 이 비행장에서 이룩한 항공 농업개발(1928)과 항공 산불진화(1955~1956) 개발 등 항공역사를 기념하는 한미항공박물관·기념공원 조성 부지로 월로우스 비행장 사용을 제안했고, 글렌 카운티의 동의를 얻었다.

월로우스 비행학교의 ‘공식’ 창립 100주년인 2020년 7월 5일에 ‘국립항공박물관’이 김포 비행장에 부지 15,000m², 연면적 18.593m²(전시면적 7,128m²) 위용으로 성대한 개관식을 가졌다. 그러나 5.4배의 부지에 서부 미국을 관통하며 매일 35,000대의 차량의 승객들에게 노출되는 캘리포니아 북쪽 월로우스 공항 부지의 사용권 획득도 나름의 의미를 지닌다.

1920년 당시에는 김종림 지사가 관리하는 벼농사 농장 하나에 비행장, 비행학교 건물 그리고 부속 건물이 모두 있었으나, 1924년에 학교 건물이 개인에게 팔려 건물 자체가 약 2Km 서북쪽으로 이전되었다. 이 학교 건물을 구입하여 월로우스 비행장으로 옮겨 복원, 월로우스 항공박물관의 중심 건물로 삼으려고 한다. ☃



월로우스 한인 비행학교 옛 건물

세종시 지역의 독립운동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년 7월 출범한 이래 많은 변화 속에서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2실 12부 3청의 정부 청사가 들어선 신도심은 과거의 자취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바뀌었으니, 아마도 상 전벽해(桑田碧海)라는 말은 이런 경우에 쓰는 말일 것이다.

출범 당시 10만여 명에 불과하던 인구도 벌써 35만 명을 넘어섰고, 세계 굴지의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구상과 계획은 미래첨단도시로서의 응비를 예



윤 철 원
세종향토사연구소 연구위원



세종시 경암 장선생 비

고하고 있다. 게다가 국민적 호응을 받으며 추진되는 국회 의사당 이전까지 완료된다면, 어느 모로 보나 ‘세종시는 곧 행정수도’라는 인식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처럼 국민적 관심을 받는 세종시 지역에서도 일제강점기에 치열한 독립운동이 전개되었으니, 1907년 일제가 강 압으로 체결한 정미7조약에 분개하여 거병한 의병투쟁을 시작으로 광복이 되기까지 3·1독립만세운동, 대동단 활동, 학생운동, 역전인부 동맹파업, 백정제사장 동맹파업, 민적 및 납세 거부, 연기청년회 활동, 호서기자동맹의 저항, 형평사 운동, 사학을 통한 계몽활동, 금강대도 저항운동 등 다양한 형태의 독립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그중에서 3·1독립만세운동은 1919년 3·13~4·20까지 10개의 모든 읍면에서 모두 34회의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는데, 장터시위 3회(전의, 조치원, 대평리장터), 횃불만세 시위 31회를 기록하였다. 세종지역 만세시위의 특징은 야간 횃불만세가 주로 많았다는 것이다. 특별히 주목되는

것은 3월 23일 조치원을 중심으로 충남 연기군 3개면과 충북 청주군 3개면이 연합하여 횃불시위를 전개한 것이다. 이들은 각 지역에서 야간에 산상횃불만세를 부르고 한밤중에 조치원을 향하여 횃불을 들고 행진했는데 전국 최초의 ‘도계마을 간 횃불 시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모두 소개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지만, 지면관계로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림을 아쉽게 생각하며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1. 세종시 의병활동

청일전쟁(1894~1895)과 러일전쟁(1904~1905)을 승리로 이끈 일본은 동북아시아에 대한 외교적 우위를 확

보하게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에 러시아의 남진정책을 경계하던 미국, 영국, 프랑스 등 해양세력은 동북아에서 일본의 외교적 우위와 침략야욕을 묵인함으로써 대한제국은 사실상 고립무원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다. 그와 같은 기회를 틈타 일제는 대한제국에 다양한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불법적인 외교협약을 체결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을사조약(1905년)과 정미7조약(1907년)이며 이러한 불평등 늑약을 바탕으로 일제는 1910년 대한제국을 병탄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대한제국 정부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하였으나 민초들은 일제의 만행에 분개하며 의병을 조직하고 무장투쟁에 나서게 되었던 것이다.

세종시 지역에서 의병이 활약하기 시작한 것은 정미조약(1907년)이 체결되던 해 9월부터이다. 이 지역에서 활약한 의병은 그 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여러 기록을 종합하면 수백 명 정도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까지 파악된 의병은 임대수(林大洙, 연기군 남면 송담리), 권정남(權正南, 일명 權主事, 연기군 남면 당암리), 임사일(林仕日, 불명), 신녕칠(申寧七, 조치원지역 활동), 이건한(장군면 태산리), 이은정(장군면 태산리), 김공빈(金公斌, 불명) 등에 불과하다. 세종시 지역에서의 의병활동은 당시 경부선 철도로 교통이 편리했던 조치원에 일본헌병대와 경찰이 주둔했기 때문에 활발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으나, 그와 같은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의병이 활약했던 모습을 여러 기록에서 살펴볼 수 있다. 다음은 기록에 근거한 세종시 지역에서 있었던 의병활약상이다.



세종시 덕천군재실

〈소정리역 습격사건〉

1907년 9월 3일 오전 9시, 임대수가 이끄는 의병 100여 명은 전의군 북면 소정리에 위치한 소정역을 습격하고 이를 불태웠다. 의병이 습격했다는 급보를 받고 일본경찰 2명이 전의 읍내로부터 달려왔으나 의병들은 이미 두 갈래로 나뉘어 50여 명은 천안 목천 방면으로, 20여 명은 온양 방면으로 사라진 뒤였다.¹⁾



세종시 독립운동 소정리 구역사

〈연기군 남면 복룡마을(진의리) 전투〉

1907년 11월 7일, 의병 30여 명이 남면 진의리 복룡마을(일명 백동)에 모여 조치원 현병대 연기분파소(分派所)를 급습할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보를 입수한 당시 남면장은 연기분파소에 밀고하였으며, 신고를 받은 연기분파소 순사 바바(馬場恒雄)와 다카하시(高橋公政)는 이 사실을 조치원역 수비대에 보고하고 즉시 출발하여 오후 3시 30분경 의병이 집결해 있는 복룡마을에 도착하였다.

이 마을은 작은 능선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릉지에 위치하고 있었다. 바다는 동쪽 능선으로, 다카하시는 북쪽 능선으로 올라가 의병을 향해 사격을 가하자 불의의 총격을 받은 의병대도 이에 응전하였다. 그렇게 약 40여 분의 시간이 흐르자 일경들의 탄약이 거의 소진되었다. 일제는 이 교전에서 바다가 칼로 의병 2명을 죽이고 화승총 1정을 노획하였다고 보고했으나 사실은 무고한 양민을 살해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천안세무관으로 근무하던 조한벽은 “이날 교전에서 무고한 양민 2명이 총에 맞아 횡사하였는데 불쌍하고 측은하기가 한이 없다”고 보고한 내용은 일제의 만행이 있었음을 뒷받침한다.²⁾

여하튼 탄약이 떨어진 바바와 다카하시는 연기분파소로 돌아오는 도중에 조치원에서 파견된 보병대를 만났다. 보병 제47연대 제9중대 소속 마쓰이(松井常次郎) 소위가 인솔하는 병사 18명과 간호병 1명 외에 일본인 순사 3명과 한국인 순사 2명이 연합한 보병부대가 복룡마을에 도착하였을 때

1) 충청남도 관찰사 최정덕, 1909.10.22, 「적도상황에 대한 건」

2) 조한벽, 「천안세무관이 의병의 봉기로 납세의 지체와 부상당한 민간인을 보고」1907.11.26. 『報告書 第一五號』 (http://db.history.go.kr/id/mk_033_0050_0630 2021.1.27)

는 이미 의병이 후퇴한 뒤였다. 일본 경찰대는 주민들로부터 도주한 경로를 조사하여 연기 학천(鶴川)에서부터 공주 갈산(葛山), 두곡(杜谷), 입석(立石)까지 추적하였지만 공주 당곡(堂谷)에서 의병의 종적을 완전히 잃고 말았다.

한편 특무조장 후카미(深水壯馬)가 이끄는 기병 10명도 순사 요시미(吉見清次郎)를 수행하고 연기에서 우회하여 의병을 추적하였으나 역시 당곡에서 종적을 잃고 귀대하였다. 의병들이 주둔하고 있던 복룡마을은 임대수의 집에서 멀지 않은 곳이며, 종적을 감춘 당곡은 바로 권정남의 출신지였다. 따라서 이 전투를 수행한 의병은 임대수 의병과 권정남·임사일(林士日) 등이 이끄는 의병연합 부대였던 것으로 보인다.³⁾

2. 대동단 활동

대동단은 1919년 서울에서 조직된 비밀 독립운동 단체다. 3·1운동 이후 설립된 지하단체 중에서 도 규모가 컸던 단체로 항일독립투쟁 역사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한다. 이 단체는 1919년 3월 말경 서울 봉익동 전협의 집에서 결성되었으며 이를 주도한 사람은 김가진, 전협, 최익환, 김찬규 등이었다. 대동단은 관료, 유림, 학생, 의병, 승려, 여성, 보부상 등 각 계각층 11개 단체 대표자로 구성되었는데 수만 명의 단원이 참여하였으며 정식 명칭은 조선민족대동단이라고 불렸다.



세종시 김가진, 전협, 최익환 KBS

대동단의 설립 취지는 “일제의 통치에서 벗어나 독립된 나라를 형성하고, 세계평화를 확보하며, 사회주의를 철저히 실행한다”는 3대 강령을 내세웠다.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용되었으며 경기, 충청, 전라, 평안도 등 국내뿐만 아니라 만주 안동현(현 단등) 등 동포들이 살고 있는 국외에도 지부를 설치하고 단원과 자금을 모집했다.

대동단 사건 중 특히 유명한 사건은 고종의 아들 의친왕 이강(李岡)을 상하이로 탈출시키려 한 사

3) 디지털세종시문화대전(김상기), 공훈 전자 사료관(폭도에 관한 편책)



세종시 의친왕 사진

바람에 실패하고 말았다. 이 사건으로 수많은 대동단원들이 붙잡혀 옥고를 치렀다.⁴⁾

<세종시 지역의 대동단 활동>

당시 대동단은 전국적인 조직으로 확산되었는데, 세종시 지역에서도 대동단원 활동이 있었다. 당시 조치원읍을 중심으로 청주, 공주, 대전 등을 은밀하게 연락하던 대동단원은 남면 양화리 임현빈, 제천리 임현성, 길주의 최시린, 유성 권성채, 청주 윤집과 오지환 여사 등 6인이었다. 임현성은 연기군청에 재직하고 있었음에도 대동단원으로 활약하면서 독립운동 군자금 조달에 전력하였다. 이후 만주 여순에서 무장투쟁을 전개하다가 일본군에게 총상(발뒤꿈치)을 입고 함경북도 갑산으로 피신하던 중 일경에 붙잡혔다. 그러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여순감옥에서 2년간 옥고를 치르던 중 출옥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고문 후유증으로 갑작스럽게 별세하였다.⁵⁾

다음은 임현성이 여순감옥에서 고향 친구 임현빈에게 보낸 옥중서신인데 당시 그의 심경의 일단이 잘 나타나 있다. “……평생에 뜻 두기를 금안준마(金鞍駿馬)에 호로가(葫蘆歌)를 부르고 금의환향하였다더니 세상만사 춘몽 중에 또다시 꿈만 같도다. 오늘은 출역일이라 안중근 무덤에 풀을 뽑고 나니 전에 없던 눈물이 앞을 가려 그만 끊노라…….”

배상철은 3·1 독립만세 당시 연동면 노송리 아미산에서 독립만세를 주도한 인물로 당시 일제의 치명수배를 피해 상경하여 대동단에 가입하였다. 그리고 대동단 주축 인사인 전협, 최익환 등과 교류하면서 의친왕(李岡)과도 은밀하게 접촉하는 관계를 맺었다. 이후 의친왕이 배상철이 은거하는 장소까지 찾아와 춘강의소(春岡義巢)라는 네 글자를 써주었다고 한다.⁶⁾

4) 조선민족대동단기념사업회(<http://www.daedongdan.or.kr>)

5) 맹의섭, 1972, 『추운실기』, 새한출판사, 54쪽.

6) 위의 책, 55쪽.

건이다. 이는 의친왕을 상하이 정부에 참여하게 하여 외교적 효과를 얻는 한편, 의친왕과 김가진의 이름으로 제2차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内外의 관심을 고조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먼저 김가진이 상하이로 건너갔고, 의친왕은 상복을 입고 상주로 가장해 중국 안동(현 단등)까지 갔으나 1919년 11월 11일 그곳에서 일본경찰에 불들리는

이밖에도 세종시 지역과 연관이 있는 대동단원은 박원식(朴源植)이다. 홍성이 고향인 그는 1918년 연기청년회가 발족할 당시 조치원에서 언론에 종사하면서 연기청년회원으로 활동하다가 3·1운동 시에는 홍성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이후 상경하여 대동단에 가입하고 1919년 11월 28일 안국동 광장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만세를 부르다가 체포되어 2년간 옥고를 치렀다.⁷⁾

3. 민적 및 납세 거부 운동

일제는 1909년 가옥세법·주세법·연초세법에 이어 국세징수법을 제정하고 민적법(民籍法)을 공포하여 실질적인 식민지 지배체제를 확립하였다. 또한 1911년 조선교육령을 발표하여 교육의 목적을 “교육에 관한 칙령에 입각하여 충량한 국민을 육성하는 것을 본의로 한다”고 제시하며, 보통학교에서 국어교육으로 일본어를 가르치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일제의 동화정책이 시행되자 유림은 일제가 요구하는 세금을 거부하며, 민적(戶籍)에 등록하기를 완강히 거부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당시 유림은 일본 정부에 세금을 내거나 그 호적에 등록된다는 것은 곧 그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충절의리에서도 허용되지 않을 뿐더러, 이민족의 지배를 받는 백성이라는 것은 노예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⁸⁾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세종시 지역에서도 일제의 동화정책에 저항한 인사들이 많이 있었으나 그중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한다.

〈장재학, 장재규, 장화진 가문의 저항〉

연기군 동면 예양리에 거주했던 장재학과 장재규는 형제간이고 장화진은 장재학의 아들이다. 이들은 일제가 추진하는 민적(民籍) 신고에 불응하고 세금납부를 거부하여 탄압을 받았다.

유림이었던 장재학은 1910년 나라가 일제에 병탄되자 통탄해 마지않았다. 일제에 의해 제정된 민적법이 시행되자 1915년 3월 12일 조치원 현병 분견소 소속 현병 야나기사와 도지로(柳澤藤次郎)가 민적 정리를 위하여 동소에 비치된 민적부를 가지고 민적 조사를 시행하자 “지금 시행되는 민적은 떳떳한 국민의 본의가 아니다. 내가 책을 읽고 학문을 하는 것은 본래 나라를 돌보고 백성을 사랑하기 위함이거늘, 오히려 일본 오랑캐의 백성이 되고자 할 것 같으냐?”라며 꾸짖으면서 자기 호적을 찢어 불태웠다.

7) 위의 책, 75쪽 ; 공훈전자사료관(<https://e-gonghun.mpva.go.kr/>)

8) 한민족 독립운동사, 한국사 데이터 베이스

장재학은 이 일로 일본 현병에 체포되어 조치원 현병대에서 20여 일간 고문을 당했으나 끝내 굴복하지 않았다. 이후 공주 형무소로 이감되어 한 달여 동안 고문과 회유를 당했지만, 그는 뜻을 굽히지 않다가 경성형무소로 이감되어 재판에서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복역 중에는 접시를 깨 자결을 시도하기도 하였으나 실패하여 더욱 심한 감시를 받았으며, 형무소 규칙을 어겼다고 5개월의 형기 연장을 통보받았다.

이에 장재학은 “너희가 우리 국모를 시해하고 황제폐하를 능욕하며 나라를 빼앗았으니 너희는 우리 민족과 한 하늘 아래에 함께할 수 없는 원수이거늘 어찌 너희 백성이 될 것인가? 이미 너희 백성이 아닐진대 어찌 너희 법의 다스림을 받으리오?”라며 다시 자결을 기도하여 인사불성으로 사경을 헤매었다. 이에 형무소 관계자들이 놀라 미음과 우유를 주었으나 거부하며 일체 먹지 않자 기계로 입을 벌려 얹지요 떠넣어 목숨을 보존하다가 1년 후에 석방되었다.

집에 돌아와서는 “나는 한국인이고 내 땅도 한국 땅인데 차라리 죽을지언정 어찌 일본 오랑캐에게 세금을 내랴!”하며 일체 납세를 거부하였다. 이에 일제는 재산압류 등으로 세금을 거두어 갔다.

1916년 겨울에는 일본현병 무리가 들이닥쳐 보안법을 위반하였다며 장재학과 동생 장재규를 체포하여 형 장재학은 전라도 고흥군 거금도로, 동생 장재학은 완도군 소완도로 유배시켰다. 장재학은 거금도에서 유배당하는 동안 모든 우편물을 수취 거절하였다. 일제는 우편법 위반이라며 순천 형무소에 이감하고 태형에 처한 후 벌금 19원을 부과함과 동시에 유배를 1년 더 연장하였는데 고문 후유증으로 고생하다가 1919년 작고하였다.⁹⁾

장재규는 형 장재학보다 20세 연하였다. 그는 형과 더불어 일제에 납세 거부는 물론이고 민적에 등재되는 것도 거부하였다. 또한 일본제품은 일절 사용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기차나 자동차도 이용하지 않을 정도로 일제에 저항하였다. 장재규는 형 장재학이 경성형무소에 수감되었을 때 10여 차례나 면회를 갔으나 번번이 거절당하자 옥중의 형에게 다음과 같은 한시를 보내 일제로부터 더욱 심한 탄압을 당하였다.

산하이역계무전(山河移易計無田, 빼앗긴 나라에 경영할 농토도 없으니)

불사유민매포차(不死遺民每抱羞, 나라 잃은 백성 죽지 못함이 늘 부끄러워라)

두상증림한일월(頭上曾臨韓日月, 머리 위 뜬 해와 달은 이 나라를 비추나)

피중상유노춘추(彼中尙有魯春秋, 그중에 공자의 윤리는 남아 있는가)

9) 위의 책, 156쪽; 박종관, 1997, 『연기인물지』, 조치원문화원, 236쪽.

단심래변진정곡(丹心來辨秦庭哭, 감옥 벽에 기대어 내 진정 울부짖으며)
백발향사초택수(白髮向辭楚澤囚, 백발 형 갇히신 감옥 향해 인사하노라)
형제종연한난이(兄弟從然寒暖異, 형제가 함께함이 당연하나 형은 춥고 나는 따뜻하니)
매지남북치상유(梅枝南北耻相猶, 남북으로 뻗은 매화가지만도 못하구나)

형이 별세한 후에도 납세를 계속 거부하던 장재규는 청주교도소에서 여러 차례 자결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으며, 나중에 대전교도소에 수감되어서는 단식으로 저항하다가 광복을 맞이하였다. 장재규는 옥중에서 그릇을 깬 사금파리조각으로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자신의 배를 여러 번 그은 흉터가 얼마나 깊었던지 해방이 된 후에 그 흉터를 본 사람들은 차마 눈을 뜨고 보지 못할 정도였다고 한다.¹⁰⁾

장화진은 1917년 부친과 숙부가 납세 거부 등으로 유배되자, 호적과 납세를 거부하며 저항하였다. 그리고 우편물 수취도 거부하여 우편법 위반으로 두 차례 벌금 처분을 받았다. 이후에도 호적 입적과 납세를 거부하며 일제 통치에 항거하다가 1917년 4월 공주지방법원으로부터 유배 1년을 받아 제주도에 유배되는 고초를 겪었다.

〈김순경의 납세 거부와 저항〉

연동면 예양리에 거주하던 김순경(金舜經)은 일제에 납세를 거부하며 저항한 인물이다. 당시 29세였던 그는 1919년 일제가 발부한 제2기 호세(戶稅) 고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였다. 이에 동면장과 연기군수가 2~3차례 간곡히 설득하였으나 완강히 거부하였으며 관공서에서 보낸 공문서도 일체 수령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한국 국민이다. 우리 황제(고종)께서 돌아가신 이후로 군주가 없으니 세금납부는 물론 관청지시도 받을 이유가 없다.”라며 저항하였다.

그해 10월 16일 체납세금 강제집행을 위해 군서기와 경찰관이 입회한 가운데 연기군수가 발행한 배달증명 우편물을 전달하려 했으나 김순경은 우편물 인수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일경은 그를 경찰서로 연행하고 우편물 수령을 강요하였지만 역시 태연자약한 모습으로 응하지 않았다.

이처럼 납세를 거부하자 일경은 우편법 제23조 위반이라며 과료 10원에 처하고 즉시 납부를 명령하였으나 이것마저 거절하므로 10월 26일 구속하였다. 이러한 팝박에도 김순경은 “내가 차라리 굽어 죽을지언정 너희가 주는 음식은 먹지 않을 것이다”라고 호통을 치며 저항하였다¹¹⁾.

10) 맹의섭, 1972, 앞의 책, 52~54쪽.

11) 『지방민정汇报』 1919. 11. 7

4. 조치원 역전 화물운송인부 동맹파업



세종시 독립운동 조치원 역

1920년 소위 ‘문화통치’가 시작되면서 조선 내에 회사 설립을 제한하는 회사령이 폐지되었다. 그러자 일본 자본이 조선으로 물밀듯 들어왔고, 그에 밀려 조선 자본은 발달하지 못했다. 그러나 일부 친일파들은 친일 행위로 자본을 축적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노동착취에 대항하여 항일 노동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¹²⁾

항일 노동운동의 형태는 노동쟁의나 동맹파업으로 나타났는데 세종시 지역에서도 조치원역 화물운송 인부들의 동맹파업이 세 차례 있었다. 먼저, 1921년 6월에 40여 명의 조치원역전 7개 운송점 화물운송 인부들이 화물 운반 임금을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며 동맹파업을 단행했다.¹³⁾ 그리고 같은 해 8월에도 120여 명의 조치원역전 7개 운송점 화물운반 노동자들이 임금인하에 반대하며 동맹파업을 단행했다.¹⁴⁾ 1929년 10월에는 일본인 역원이 한국인 인부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하는 것에 반발해 화물운송인부 100여 명이 동맹파업을 단행하였다.¹⁵⁾ 그중 1929년의 조치원역 운송인부 동맹파업 사례를 소개한다.

조치원역은 경부선 철도가 개통되던 1905년부터 영업을 개시한 이후로 여객과 화물수송으로 늘 봄비는 곳이었다. 특히 청주와 공주의 중간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두 도시로 운송되어야 할 화물과 충청내륙지방의 농산물을 대도시와 일본으로 수출하기 위한 물류기지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화물이 늘 산적해 있었고 이를 처리하는 운송인부들의 노역이 매우 필요했기 때문에 역 앞의 7개 화물운송점에는 늘 인부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그런데 1929년 10월 2일 조치원역 앞의 각 운송점에서는 한 사람의 운송인부도 찾아볼 수 없었다.¹⁶⁾ 산적해 있는 화물이 처리되지 않고 인부들조차 보이지 않자 무슨 상황인지를 알지 못하던 조치원역장은 다급하게 역 앞의 운송점들을 방문하여 원인을 파악하였다. 문제의 발단은 조치원역에

12) 참여와 혁신(<http://www.laborplus.co.kr>)

13) 『동아일보』, 1921.6. 조치원역전 운송점 화물운송인부 동맹파업

14) 1921.8.7, 「鳥致院 人夫의 罷業, 운송업자가 품삯을 깎은 결과, 이백여명의 인부가 동맹파업」

15) 조치원읍지 편찬위원회, 2012, 『조치원읍지』, 215쪽.

16) 『중외일보』, 1929.10.7. 「鳥致院驛 運送人夫 盟罷, 원인은 화물계원의 폭행, 역장의 알선으로 곧 복업」



서 화물을 취급하는 일본인 운송계원 고토(後藤)의 민족차별 언행에 있었다. 고토는 평소 한국인 인부를 경멸하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 이러한 고토의 안하무인격 언행을 더 묵과할 수 없었던 7개 운송점 인부들은 고토가 근무하는 날에는 한 사람도 나오지 말자고 결의하고 파업을 감행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사연을 전해 들은 조치원 역장은 자신이 책임지고 해결할 것을 다짐하며 인부들의 출근을 호소하였는데, 이는 운송인부들이 일제의 민족차별에 항거하여 자신들의 권익을 되찾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세종시독립운동 조치원 운수창고주식회사

5. 호서기자동맹

호서기자동맹은 일제강점기 충청권 한글신문 및 잡지기자들이 결성한 언론인 단체로서 조치원에 주 사무소를 두고 지역 언론의 권위신장 증진은 물론이고, 일제의 부당한 처사를 지적하고 경고하는 기사를 보도함으로써 일제의 감시와 탄압을 받은 항일언론단체이다.



세종시 독립운동 중외일보 1930. 8. 7자. 호서기자북부지부창립

이 단체의 태동은 1925년 4월 15일 서울 천도교 강당에서 개최된 ‘전국 기자대회’에서 시작되었다. 이 대회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시대일보사 등 당시 한글신문을 발행하는 전국 기자들이 모여 개최한 행사로 언론의 권위 신장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구속철폐 및 기타 사회문제에 대한 엄정한 보도 등을 결의하기 위한 회합이었다. 주최 측은 이날 대회에서 ‘강령’을 채택하고 민중행사를 개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일제는 ‘강령’을 압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중대회개최도 불허하였다. 다음은 서울에서 일제에 의해 압수당했던 전국기자대회 강령이다.

강　　령

1. 우리는 호상 협조하여 언론의 권위를 신장 발휘하기로 기함.
1. 언론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구속의 철폐를 기함.
1. 신문과 기타 출판물에 관한 현행법규의 근본적 개량을 기함.
1. 일반사회문제에 대하여 엄정한 태도로 일치한 보조를 기함.

이와 같은 일제의 탄압을 목격하고 귀향하던 신문기자 맹의섭(조치원), 이재훈(아산), 이상하(영동) 등은 충청권 한글신문 및 잡지사에 종사하는 기자들의 권리와 언론권위 증진을 위한 모임체를 구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들은 1925년 8월 하순 온양에서 발기모임을 갖고 9월 충남북의 중간인 조치원에서 창립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조치원에 거주하는 맹의섭, 오병렬, 홍범규 등 3인에게 창립대회 준비를 일임하였다.

1925년 9월 20일 일제 경찰의 삼엄한 감시 하에 조치원에 소재한 연기청년회관에서 창립대회가 열렸다. 회의는 성황리에 시작되었으며 홍범규의 사회로 의장에 신건우, 서기에 맹의섭, 김경렬이 선출되어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 모임의 명칭을 ‘호서기자단’으로 정하고 사무소는 대전에 두기로 하였으며, 상무집행위원으로 우호경, 송재기, 주흔규, 홍범규, 맹의섭, 보통집행위원은 김유봉, 이락순, 배기형, 이재훈, 오병렬, 구락서, 신건우, 이상하, 심기택, 김경렬을 선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은 ‘강령’의 채택이다. 동 강령은 4월 15일 서울에서 일경에 의해 압수된 ‘전국기자대회 강령’과 동일한 내용인데 서울에서는 내용이 불온하다 하여 일제에게 압수당한 강령임에도 호서기자단이 이를 채택한 것 자체가 일제에 저항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26년 11월 29일 공주에서 열린 제2회 대회에서는 ‘호서기자단’의 명칭을 ‘호서기자동맹’으로 바꾸었으며, 대전에 두었던 사무소도 충남북의 중심인 조치원으로 이전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충청권 4개 지역에 지부를 설치하였는데 동부는 청주, 서부는 부여, 남부는 대전, 북부는 예산에 설치하

였다.¹⁷⁾ 이후 1936년까지 일제의 부당한 권력 행사를 보도하고 언론탄압 사례에 항의함으로써 일제의 일방적 횡포에 경종을 울렸는가 하면, 조선시보 등 일본어 신문의 한국인 비하보도에도 대응하여 정정 보도케 하는 등 항일단체로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하였다.

예컨대, 중외일보 ‘언론압박을 상투로 하는 대전경찰의 횡포(1925.11.30)’, 시대일보 ‘지상에 계재 전 서장의 승낙 필요(1925.11.19)’, 중외일보 ‘직권남용의 영동경찰의 횡포(1927.4.22)’, 중외일보 ‘호서기자단 경고문을 발송(1927.5.13)’, ‘호서기자단 각처 사형(私刑) 사건에 경고문 발송(1927.7.19)’, 중외일보 ‘폭언지 조선시보 철저 응징키로(1930.7.8)’ 등을 보도하였는데, 이는 일제의 압제에 호서기자동맹이 저항한 사례이다.

이처럼 1925년 창립된 호서기자단이 ‘강령’을 관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자 일경과 충돌이 누적되었다. 일제는 이러한 호서기자단의 활동을 탄압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1936년 9월 9일 강제로 해산시켰다. 

17) 맹의섭, 1972, 앞의 책, 83~86쪽.



『동주, 걷다』

• 지은이 | 김태빈 • 쪽수 | 248쪽 • 출판사 | 레드우드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사랑한 시인과 함께 걷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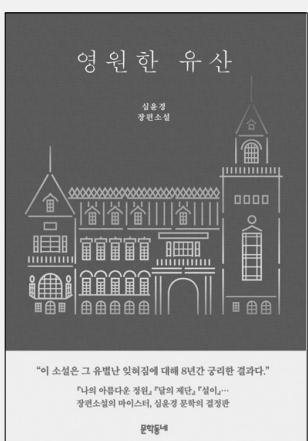
윤동주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시인 중 한 명이다. 그러나 우리가 윤동주를 가장 잘 아는 시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동주, 걷다』는 북간도에서 교토-도쿄-서울 그리고 감옥에서 생을 마감한 후쿠오카까지 걸으며 그의 삶과 뜻을 되새긴다.

저자 김태빈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2019년, ‘다시 걷는 독립대장정’과 ‘분단이 지워 버린 항일 투사들’ 다큐멘터리에 참여했고, 안중근 의사 하일빈 의거 110주년을 기역해 『대한국인 안중근』(공저)을 썼다. 저자는 동주의 길을 5년 동안 걸었다. 시인이 공부하고 걸은 공간을 글과 사진으로 그대로 복원하려 노력했다. 독자들이 윤동주의 삶과 시를 좀 더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었으면 하는 계

문학 교사인 저자의 바람이다. 『동주, 걷다』는 윤동주 평전으로, 시 해설서로, 그리고 답사 가이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지금 『육사, 듣다』를 준비하고 있다.

『영원한 유산』

• 지은이 | 심윤경 • 쪽수 | 284쪽 • 출판사 | 문학동네



“이 세상에는 사라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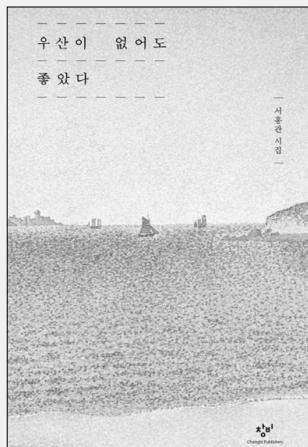
『나의 아름다운 정원』, 『달의 제단』, 『설이』의 작가 심윤경의 장편소설. 소설의 배경은 해방 후 20년이 지난 1966년, 무대는 옥인동 ‘벽수산장’이다. 이름 없는 독립운동가의 아들 이해동은 유엔 산하 한국통일부흥위원회(언커크UNCURK)에서 통역 비서로 일하고 있다. 현재 언커크의 사무실로 쓰이고 있는 대저택 벽수산장은 친일파였던 윤덕영이 지은 별장이었다. 달려로 월급을 받으며 ‘나 정도면 괜찮은 삶이지’ 생각하는 소시민 청년 이해동 앞에 어느 날 윤덕영의 막내딸 윤원섭이 나타난다. 윤원섭은 아무도 몰랐던 비밀의 방을 찾아내며 언커크에 파견 온 외교관들에게 저택의 옛 주인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각인시킨다. 기세등등해진 윤원섭의 뻔뻔한 말들을 통역하며 이해동의 삶에는 서서히 균열이 일기 시작한다.

이해동에게는 적산(敵產)이며 윤원섭에게는 유산(遺產)인 저택 벽수산장이 그 모든 것을 굽어보는 가운데, 상반된 정신적 유산을 물려받은 두 인물의 전혀 다른 삶의 행보가 박진감 넘치게 그려진다.



『우산이 없어도 좋았다』

• 지은이 | 서홍관 • 쪽수 | 128쪽 • 출판사 | 창비



“여전히 나는 고통 속에서도 기쁘게 살아갈 것이다”

세계의 고통을 어루만지는 사랑의 시선
애틋한 이들에게 전하는 위로의 목소리

1985년 시인으로 등단 아래 의사이자 시인으로 꾸준히 활동해온 서홍관 시인이 『어머니 알통』(문학동네, 2010) 이후 10년 만에 네 번째 시집 『우산이 없어도 좋았다』를 묶어냈다. 그간 저자는 시작 활동 외에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창립주역,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 등 다양한 곳에서 사회활동을 해왔다. 시인 서홍관은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회원이기도 하다. 세상에 만연한 만연한 고통에 가장 먼저 귀 기울인 의사이자 시인으로서, 저자는 이번 시집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의 덧없는 고통까지 어루만지는 특유의 다감한 시선을 고스란히 풀어놓았다.

이번 시집은 5부로 구성되었다. 1부에서는 앙코르와트에서 물건을 파는 캄보디아 소녀들(『앙코르와트 소녀』), 학교에 가고 싶어 노동을 감내하는 네팔 소녀(『네팔 소녀 돌마』), 세월호 참사 때 희생 당한 고등학생(『나는 살고 싶은데』) 등 다양한 인물이 등장한다. 또 제3부부터 제5부에서는 사람들 보기 좋으라고 입구를 하트 모양으로 만들어 정작 새들은 오가기가 힘들어진 새 둥지(『정발산 박새 말씀이』), 작품 사진을 찍겠다는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잘라내 포식자에게 노출되어버린 꾀꼬리(『전기톱』), 그물에 갇혀 죽어간 새들(『새그물』)의 이야기가 이어진다. 모든 존재가 현재의 고통으로 와닿는다.

“이 시집의 주제들은 가볍게 읽을 수만은 없는 것들이다. 의사로서 겪는 삶과 죽음의 문제도 그렇고 지식인으로서 보는 역사며 인간 존재도 그렇다. 그럼에도 이 시들을 읽으면 무거워지기는커녕 오히려 즐겁고 가벼워진다. 마치 ‘기쁜 마음을 살짝 누르면서 (...) 쑥도 보고 냉이도 보’(『전원교향곡』)면서 시골길을 걷는 느낌이다. 시를 읽는 일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하는 시들이다.”

(신경림 시인 추천사)



| 독립정신 | 이모저모 |

총회 후속작업 결과보고

지난 연말 열린 총회는 본회 창립 아래 유례 없는 ‘서면총회’였습니다.

감독관청인 국가보훈처 방역지침에 따라 ‘서면’이라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지난 총회는, 그러나 회원님들에게 번거로운 일이었습니다. 우송된 자료집에 첨부된 ‘총회 의결서’에 표기하시고 사무처에 다시 보내주시는 수고를 해주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회원님들이 번거로움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쉬운 것은 회원님들이 동의해주신, 수익 사업 정관변경이 무산된 것입니다. 총회에서 결의된 수익사업 조항은 본회 고유의 사업수행을 위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조선민족대동단기념사업회와 본회가 공히 추진했습니다. 별도의 조항을 통해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본회의 운영과 설립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본회 감독관청인 보훈처는 먼저 제출된 조선민족대동단기념사업회 정관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이 구성원에게 분배되지 않음이 명시되지 않았음’과 ‘수익사업의 내용도 명시되지 않았음’ 등의 이유를 붙여 불승인하고 신청서를 반려했습니다.

사실 수익사업의 근거 조항의 정관 산입은 2019년 총회에서도 의결된 일이었습니다. 2019년 12월 보훈처는 ‘정관 변경을 위한 총회 의사의결 정족수 미충족’을 이유로 정관변경허가 신청서를 불승인하고 반려했습니다. 그런데 총회 의사의결 정족수를 만족시킨 이번 총회의 같은 의결에 대해서 전혀 다른 이유를 들어 불승인하고 신청서를 반려한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본회의 정관변경신청도 불승인할 것이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본회의 정관변경신청도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위를 막론하고, 회원들께서 어렵게 보내주신 총회의결서의 결의가 실현되지 못한 것에 대해 사무처 구성원들은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아울러 2년 연속 각각 다른 이유를 들어 정관변경을 불승인한, 보훈처 공무원들의 자의적인 결정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합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수신 (사)조선민족대동단기념사업회 대표
(정유)
제목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 허가 신청서 반려(조선민족대동단기념사업회)

1. 관련근거
가. 민법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및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나. 조선민족대동단기념사업회-20-1215-01(정관 개정 승인요청, 2020.12.15)호

2. 귀 사업회에서 신청한 법인 정관 변경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법인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인 명 : (사)조선민족대동단기념사업회(대표 : 장명국)
나. 신청내용 : 법인 정관 변경
수익사업 관련 조항 신설
다. 검토결과 : 신청서 반려 ※ 세부내용은 별첨 참조

붙임 : 정관 변경 검토 결과 1부, 끝.

국가보훈처

주무관 정대희 사무관 정양진 과장 최정아
날짜 2020.12.30



| 독립정신 | 이모저모 |



김자동 회장, 우에무라 일본 <주간 금요일> 발행인 격려



본회 김자동 회장이 12월 7일, 1991년 아사히 신문을 통해 한국 종군위안부 문제를 최초로 보도했던 우에무라 전 기자를 만나 격려했습니다.

보도 이후 일본 우익의 집중적인 표적이 되었던 우에무라 선생은 명예훼손 소송으로 대응했고, 이 재판은 한일 양국 언론의 관심의 대상이 됐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초빙교수 계약기간이 만료된 우에무라 선생은 일본에 돌

아가 진보잡지 <주간 금요일> 발행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종군 위안부 문제는 우에무라 재판 종결로 마무리되었다”라고 언급한 아베 전 일본수상의 발언에 맞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자동 회장, 2020년 마지막 언론 인터뷰

12월 30일, 본회 사무실에서 김자동 회장과 YTN 라디오 이은지 제작팀장의 인터뷰가 있습니다. YTN 라디오가 진행하는 <독립군가 복원 캠페인>의 일환이었습니다.

<독립군가 복원 캠페인>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이 남긴 독립운동가(歌)를 그 직계 후손이 육성으로 부르고 이를 녹음·채보하여 복원하는 기획입니다.



광복회 호주지회 소식



보유하고 있는 책들을 보내, 교포 청소년들의 학습자료로 제공합니다.

얼마 전에는 ‘대한독립 손수건’을 보내드렸습니다. 디자인 가안재의 강효숙 대표께서 본회에 기증해주신 물품이었습니다. 이 ‘대한독립 손수건’을 호주 청소년 동포 민족캠프를 준비하는 TF팀 기획위원들에게 위촉장과 함께 부상으로 지급하셨다고 알려오셨네요. 올해도 활발하게 펼쳐질 호주 광복회와 황명하 회장님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광복회 호주지회(회장 : 황명하)는 본회와 활발하게 교류하는 해외동포단체입니다. 본회 회원 소식지 <독립정신>의 유일한 해외 배송지가 호주 시드니입니다. 매년 여름 <독립정신 답사단>에 참여하는 해외동포 대학생들이 호주에서 옵니다. <한국사를 지켜라1·2, 김형민, 푸른역사> 등 본회가

- 후원회비에 감사드립니다 -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 조선민족대동단기념사업회 2020년 11월, 12월 회비 납부자 명단 ◆



사단법인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우)03173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길 19 로얄빌딩 602호

TEL : (02) 3210-0411, 3210~0422 | FAX (02) 732-2870

E-mail : kpg19197837@daum.net

<http://www.kopogo.com>

입회원서 및 CMS 자동납입 신청서

이 름		연 락 처 (휴대폰)	
주민번호			
주 소			
e-mail			
은 행 명	은행	이체희망일	15일 <input type="checkbox"/> 25일 <input type="checkbox"/>
계좌번호			
납부금액	1만원 <input type="checkbox"/> 20만원 <input type="checkbox"/>	2만원 <input type="checkbox"/> 자유지정금액 ()	3만원 <input type="checkbox"/> 5만원 <input type="checkbox"/> 10만원 <input type="checkbox"/>

본인은 **(사)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설립목적에 적극 찬동하고, 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다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입회원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_____ (서명)

• 납부하신 회비는 지정 기부금 영수증을 1월에 발행하며 연말정산에 경상비로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 본회 후원 계좌 : (국민은행) 813001-04-010309

사업회
조선민족대동단기념사업회

(우)03173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길 19 로얄빌딩 602호
TEL : (02) 3210-0411, 3210~0422 | FAX (02) 732-2870
E-mail : daedongdan@korea.com
<http://www.daedongdan.or.kr>

입회원서 및 CMS 자동납입 신청서

이 름		연 락 처 (휴대폰)	
주민번호			
주 소			
e-mail			
은 행 명	은행	이체희망일	15일 <input type="checkbox"/> 25일 <input type="checkbox"/>
계좌번호			
납부금액	1만원 <input type="checkbox"/> 20만원 <input type="checkbox"/>	2만원 <input type="checkbox"/> 자유지정금액 ()	3만원 <input type="checkbox"/> 5만원 <input type="checkbox"/> 10만원 <input type="checkbox"/>

본인은 조선민족대동단기념사업회 설립목적에 적극 찬동하고, 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다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입회원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_____ (서명)

• 납부하신 회비는 지정 기부금 영수증을 1월에 발행하며 연말정산에 경상비로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